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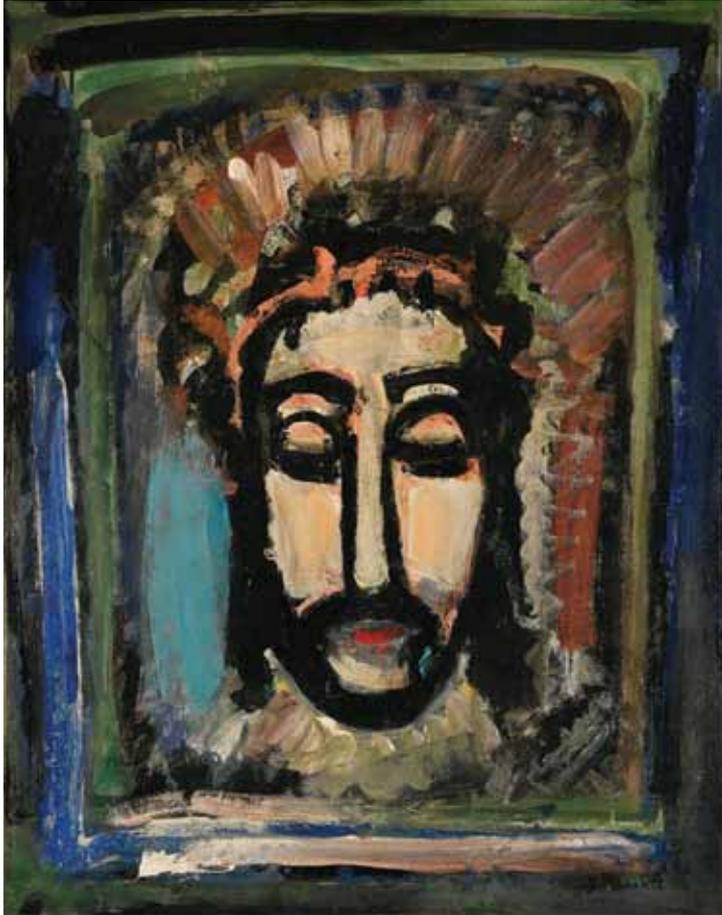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순수하고 정직한 아름다움

네덜란드 유학 때 나는 기독교 미술사학자 로크마커(Hans Rookmaaker) 교수의 강의를 청강한 일이 있다. 하루는 어떤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슬라이드로 비추어 주면서 “이건 춘화 (pornography)야!” 했다.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로크마커 교수는 2차 대전에 네덜란드 해군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독일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잡혀 온 화란의 기독교 철

학자 메커스(J. P. A. Mekkes)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쉐퍼(F. Schaeffer) 박사를 만나 네덜란드 라브리(L'Abri)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전도와 구제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카이퍼와 도여베르트의 개혁주의에 충실하였다. 그는 재즈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책을 썼고 서양 근대 미술에 일가견을 가진 미술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춘화라 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그림들을 무수히 보았지만 나는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해서 그 그림이 왜 춘화란 악평을 받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떠했는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크마커가 프랑스의 가톨릭 화가 루오 (Georges Henri Rouault)야 말로 진정한 기독교 화가로 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에서 가장 정열적인 기독교 화가로 알려진 루오는 물론 그림의 소재도 성경적인 것이 많지만 다른 소재의 그림에도 누구든지 순수성과 진실성을 느낄 수 있고 경건한 마음이 생겨난다. 로크마커가 춘화라고 악평한 그 그림에는 그런 순수성과 진정한 영적 깊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과 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는 모든 예술이다 거짓이라 했고, 백남준도 예술은 사기라 했다.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진지하며 순수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것이 예술의 목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술은 감정에 충실하여야 하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물론 감정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상해야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감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정직하게 나타나지 않고 과장되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면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백남준이나 와일드가 예술을 거짓이라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예술적 감정이 순수하지 않거나 그들 자신의 작품이 그들의 감정에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각에 철저히 충실한 작품을 창조해봐도 감상하는 사람이 작가와 꼭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거나 같은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감상이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잘못 감상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 예술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치와 의미를 갖게 되고 그에 대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해석도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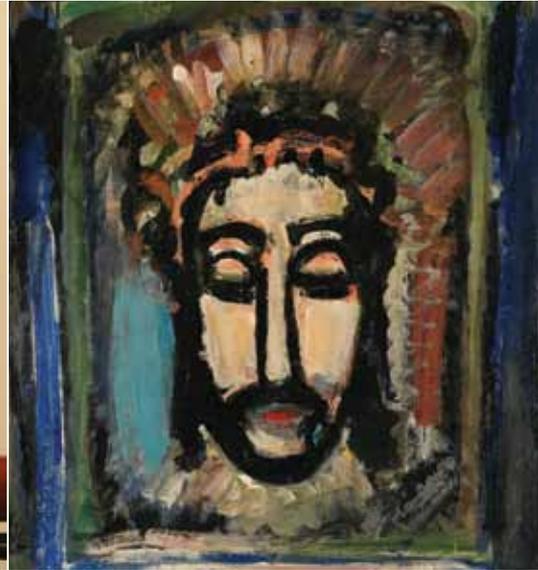
이런 현상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작가나 감상자가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적인 사기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가 느낀 것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무관하게 인기에 영합하거나 돈 있는 사람의 구미에 맞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배나 기도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성으로 하는 기도를 듣는다. 평소애 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음성과 리듬으로 기도하는데 감정을 과장해서 격하게 표현하거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웅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기도다. 여간 지겹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역겨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막아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더 더욱 역겨워하시지 않겠는가? 예술가의 작품도 비슷하지 않나 한다.

기독교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더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고상하면,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교회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거기 순수함과 진지함이 결여되면 춘화가 될 수 있고 소재가 성경과 무관해도 작가의 마음이 진실하고 경건하면 루오의 그림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숭고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인 문필가나 음악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도 않으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만 성경적이면 그게 복음성가가 되겠으며, 그런 노래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성가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역겨울 것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순수한 감정과 정직한 표현이 기독교 예술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Contents

WORLDVIEW · NOVEMBER · 2014



##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일터 신학\_폴 스티븐스 Paul Stevens

## SPECIAL

- 18 기획칼럼 '이상적 아름다움'과 '손상된 아름다움'\_서성록
- 22 기획칼럼 갈뱅은 예술을 어떻게 보았는가?\_최태연
- 26 기획칼럼 기독교 예술과 미학이 가야 할 길\_신국원
- 30 기획칼럼 아름다움을 생각하다\_안용준

## COLUMN

- 02 대표주간 순수하고 정직한 아름다움\_손봉호
- 36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_최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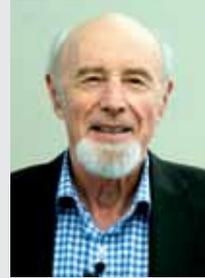
## CULTURE

- 38 불면레시피 세계관 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함께
- 60 유머 명사들의 건강증\_손봉호



# WORLDVIEW

2014년 11월호 WORLDVIEW 통권 173호



표지인물  
윌 스티브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가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BOOK REVIEW

- 40 서평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송인규
- 46 서평 <우리 이웃의 신학들> 안영준
- 50 서평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박영주
- 54 서평 <좋은 교사를 꿈꾸다> 김현정

## NEWS

- 61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       |   |
|-------|---|
| 대표주간  | 손봉호   |
| 발행인   | 김승욱   |
| 편집인   | 신효영   |
| 편집위원  |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
| 자문위원  |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 교정/교열 | 김선경   |
| 사진    | 신동헌   |
| 편집    | 김소라   |
| 디자인   | 황정희   |
| 제작    |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 인쇄    | 완산정판사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facebook.com/cworldview)
-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http://m.worldview.or.kr)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신학을 말하다

## 일터 신학

📍 번역\_전성민(VIEW 교수), 사진\_신동현 (VIEW 학생, 선교사)

캐나다 밴쿠버의 VIEW(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는 매년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한다. 지난 9월, 일터신학자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리젠틀칼리지 명예교수)의 강의를 밴쿠버 해브론교회에서 실시 되었다. 강의의 일부를 소개한다.

##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신학이라는 것은 복되게 영원히 사는 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 삶에 관한 것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포함합니다. 신학은 삶과 일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신학은 기독교신앙과 세상의 일을 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에는 사례를 받든 안받든 이해와 실천, 윤리와 영성이 포함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신학은 삶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연구였습니다. 중세 독일의 한 도시 지도를 보면, 성곽은 완벽한 원형이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 종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 tip 일터신학, 기독교신앙과 이 세상의 일을 조합하는 것

그리스에서 한 수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인가요?” 저는 “일터 신학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일을 조합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승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지 못해서 일터에서 목회자로 전향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능합니다.

## 파편화된 신학, 위계구조 속 직업

조직신학, 윤리 혹은 도덕신학, 영성신학, 실천신학과 응용신학 등 신학은 너무나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일요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등 많은 것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위계가 생기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마음과 정서에 들어옵니다. 이 직업 위계구조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선교사가,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 예를 들어 법률가, 사회복지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경찰,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 증권거래인, 상업,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 정치인들, 마약거래상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어떤 문화에서는 가정주부를 높게, 더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하대하기도 합니다.

밴쿠버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수 일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그만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 위계구조의 맨 위에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목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지저분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직업들은 육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짓밟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일은 당신의 신앙과 같은 길 위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직업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 신앙과 일의 관계

신앙과 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신앙과 일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입니다. 주 일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죠. 그러나 월요일에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세속화되어 그 일에 동화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신앙과 일,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세 번째 관계가 이뤄집니다. 이때에 일터는 기가 막힌 선교 현장이 됩니다. 사업과 선교를 구별해 놓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하나로 이해한다면 선교로서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일이 서로 다른 구획에 있을까요? 종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사업과 선교를 나눠서 생각하다가, 결국은 선교로서의 사업으로 생각이 변합니다(Entering the integrative process: Mission). 그 다음은 일터의 영성(Mysticism: Spirituality)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위한 영성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영성도 고려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일터의 윤리 혹은 도덕과 관련해서 종합해 보게 됩니다(Morality: Ethics). 네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신학적 작업에 이릅니다(Meaning: Theology).

신학교에서는 주로 위로부터의 신학을 배웁니다. 계시된 범주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터신학은 아래로부터의 신학,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제들을 논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 하나님의 나라, 성령 등 아주 위대한 주제들이죠.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부끄러움 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세속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문화를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입니다.

### tip 아래로부터의 신학?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 년 동안만 그것들을 하지 말아보세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매일 매일 일하시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가 당신의 일터에서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등등. 이렇게 52주 동안 하면 완전히 안과 밖이 뒤집어진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com+pany, 빵을 나누다

일터라는 것은 보통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시장(일터, Market Place)이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사고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고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이나 정보도 주고받고, 가치 또한 서로 교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신앙, 믿음까지도 나눕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시장보다 쇼핑몰이 있고, 증권도 거래됩니다. 무역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사고팔 수도 있고요, 사이버 공간(cyber space, 인터넷)의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것이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뜻하는 'company'는 두 개의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ny'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공유된 빵', '빵을 나누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company)입니다. 즉, 시장 혹은 일터는 이런 나눔과 생생한 삶이 경험되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터(시장, Market Place)는 빌딩에 들어가고,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일터는 공유된 영적 형성의 공간이자 나눔의 장이며 경기장이라는 것입니다.

###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1. 창조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열어봅시다. 창조라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이 의미가 있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잠재력을 열고 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창조세계 내에 서로 사고 파는, 만나는 인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저 역시 다른 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교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은 창조세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일 뿐 아니라 창조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실제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란이 아닌 질서의 공간에 있는 질서의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터에도 질서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일터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 일터에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신뢰가 없다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언약, 약속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들 아래서 재화와 용역들을 서로 교환하기로 동의한 것이며, 서로에게 속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언약의 가장 핵심에는 관계적인 토대가 놓여 있습니다. 교환 이전에 '속하다'라는 관계적 의미가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공식에 밑줄을 그어 봤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를 불러 일을 시키겠다.”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약에는 해야 할 의무들이 따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서 신실할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만일 신실하다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언약에 순종치 않는다면,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자체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지점입니다.



##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2. 타락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죄, 타락입니다. 타락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꾼들, 일 자체, 일하는 일터, 이 시장 시스템조차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인간의 본성을 압니다. 성적인 학대와 착취,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 뇌물 등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서로를 물어뜯는 경쟁, 불공정한 행위, 건전하지 못한 경제체제, 구조적인 실업문제, 노동 착취, 공정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 등의 일들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차고 흘러넘칩니다.



남미의 신학자였던 르네 빠딜라(Rene Pad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소위 말하는 복음 사역과 세속적인 일은 실제로 상호의존적이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3. 구속

성경에는 “그러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들을 구속해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일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과 공간에 살림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터의 행위들은 타락의 결과들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경감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원조나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이로써 사회는 타락의 나라에 빠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 받은층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신자들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 가난을 경감시킬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올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가져옵니다. 남미의 신학자였던 르네 빠딜라(Rene Pad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소위 말하는 복음 사역과 세속적인 일은 실제로 상호의존적이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우리의 일이 하늘의 일들을 나누는 고귀한 일임을 나는 느낀다. 만약 신자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면 노동의 현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장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가 가게가 됐건 은행이 됐건, 실험실이 됐건 학교가 됐건 공장이 됐건 그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 일까지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4. 완성

네 번째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종말 혹은 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에 존재하는 구원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머리술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머리도 다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온전한 전적인 인간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일과는 다른 그 일이 마치 노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일과 놀이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6백만 번씩 불러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 tip 하나님에게는 누구의 일이 중요한가?

J. I. 패커는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선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최고 교리들은 항상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은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의 상황이라는 타원입니다. 우리가 일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한국의 상황, 문화와 관련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의 일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일은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일하는지, 모든 일이 원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문화에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등 일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의 신학은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의 의미를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판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이 왜 판사가 되었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의 신학은 일의 위치를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신학적으로 살피는 일터

첫 번째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성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좋은 일들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종종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야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전에 했던 일은 뭐죠? 지금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종류의 주님의 일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속적인 일에서 이제 주님의 일로 바꿨다.” 또는 “파트타임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전일 사역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트타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온전함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또 누군가는 필름을 만들고, 치료하고, 법을 만들고, 교육하면서, 가정주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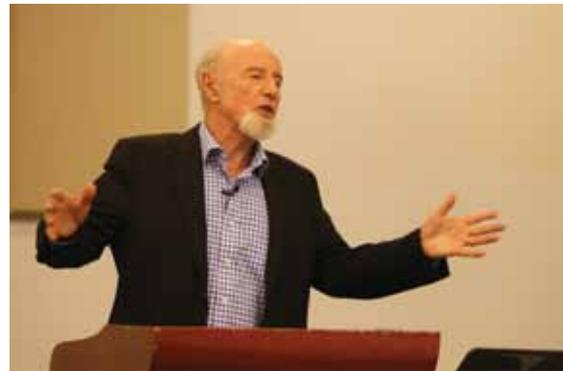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적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김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세상 안에서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사회에서의 직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들, 즉 교회가 아닌 사회의 일로 부름 받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이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은 구약에 나오죠.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을 받았습니 다.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이라는 개념의 토대를 신약이 아닌 구약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부으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제 첫 멘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다며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한 후 각자의 삶과 일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미친 짓이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93세 되신 어르신이 선교하러 다른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파송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는 분들만 보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 교회 전부가 월요일 아침마다 파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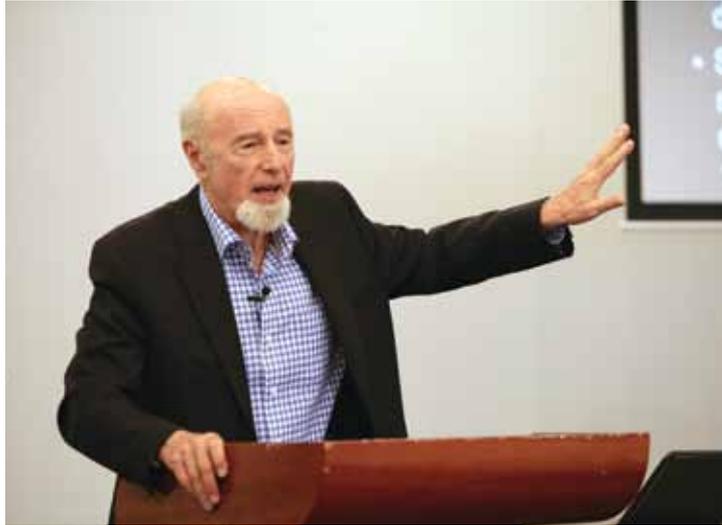
다섯 번째 결론은 사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지 못할 만큼 약한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갈 수 없는 공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라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tip** 왜 일하는가?

그렇다면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의 잠재력을 펼침으로써 그 목적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저는 광야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온 지구가 광야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시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일합니다.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피를 뽑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죠.”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진단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니까요. 약을 제공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들은 더 이상 훔치지 말고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기 위해 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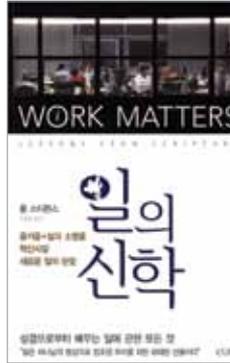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주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영역이자 경기장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일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그 일에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또한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남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할 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한 어떤 일이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죄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정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된 그곳에 우리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회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사역지로 보내기 위해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차적인 사역 장소는 어딘가요? 결코 교회 건물 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이웃 등 현장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교회가 교회를 교회 안으로만 불러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위성 교회도 만듭니다. 교회는 교회를 교회 안으로 채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그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일의 존엄성과 의미에 관해 아주 많은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무시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 설교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왜 이런 걸 놓쳤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성경에는 일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모든 본문들을 영적으로 바뀌어 이해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가 『일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Work Matters(『일의 신학』의 원제목)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한국어 제목이 아주 잘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일에 대해 썼습니다.

**tip** 『일의 신학(Work Matters)』, 폴 스티븐스, CUP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관한 모든 것. 폴 스티븐스 특유의 화법으로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재미있게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하게 하는 책이다. 성경 인물들을 ‘일’이라는 개념에 적용하여 성경에 나타난 일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멋진 선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일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삶 속으로 질문을 던지다**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일요일에 집중했던 것들의 방향을 월요일로 전환시키고, 목회 사역이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만 거룩한 일을 하고, 법률가들이나 사업가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는 1937년 캐나다 출생. 맥매스터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30여 년간 목회자로, 때로는 자비량 사역자로 섬겼으며, 1986년 밴쿠버의 캐리홀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이듬해부터 리젠트칼리지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평신도 신학과 리더십, 생활 영성 분야를 가르쳐 왔다. 2014년 현재 리젠트칼리지에서 장터 신학과 리더십 분야 명예교수로 있으며,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바케대학원대학교와 싱가포르에 있는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철강회사를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잡역부에서부터 회계, 사무직 등 두루 경험을 쌓았고, 목수 일을 배워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긴 경험을 통해 예배당에 갇힌 신학이 아닌 삶의 현장을 신학의 무대로 삼는 ‘생활 신학’을 삶으로 살아 왔다.

저서로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일·삶·구원」,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폴 스티븐스의 결혼이야기」,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IVP),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조이선교회),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공저, 복있는 사람),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공저, 미션월드) 등 30여 권이 있다.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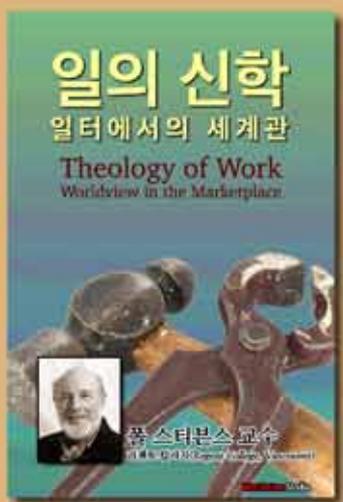
##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리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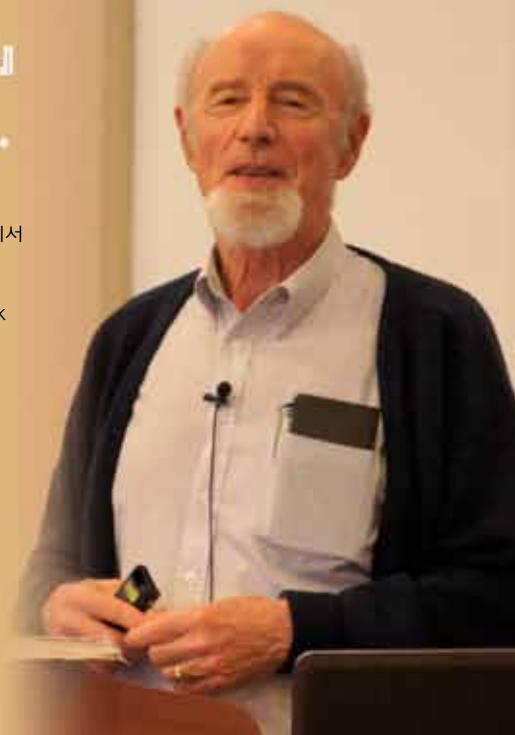
<b>모집분야</b>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b>MACS/DCS 과정의 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li> <li>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li> <li>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li> <li>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li> </ul>
<b>지원자격</b>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폴 점수 불필요
<b>교수진</b>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b>원서마감</b>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b>문의처</b>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 폴 스티븐스 교수의 『일의 신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본 강의는 구입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테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ondemand/wvl101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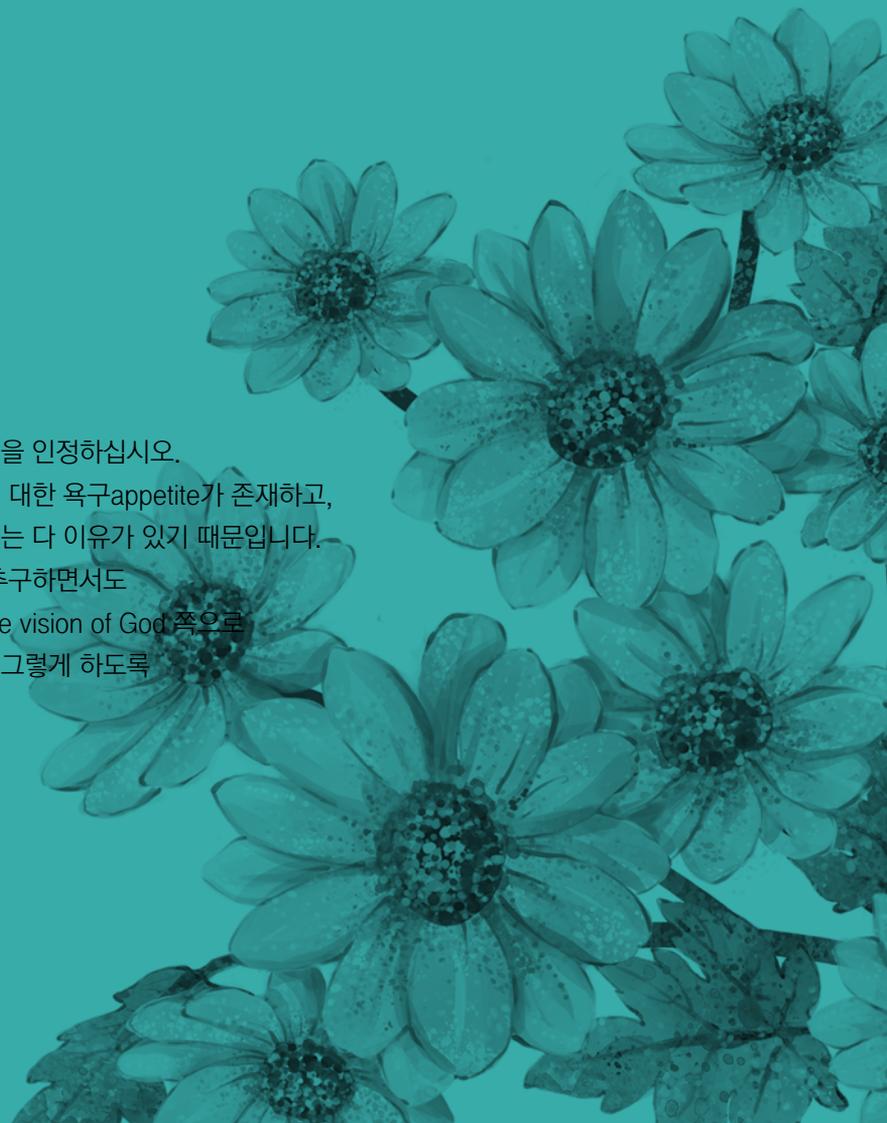


# WORLDVIEW SPECIAL

## 진정한 아름다움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되  
그 욕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진리와 미에 대한 욕구appetite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욕구를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뵈옵는 the vision of God 쪽으로  
전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무게』중에서, C.S.루이스



## ‘이상적 아름다움’과 ‘손상된 아름다움’

말콤 몰리, 토니 크랙, 애니쉬 카푸어 등 술한 작가들을 배출한 영국의 터너상(Tuner Prize)은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 미술계가 주목하는 행사이다. 그런데 이 상은 황당한 작품으로 이목을 끄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해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토막 낸 뒤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담긴 몇 개의 수조에 나누어 발표한 작가에게 대상이 돌아갔는가 하면 다음 해는 음식물과 빈 술병, 콘돔과 피임약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 작가의 침대를 그대로 갖다놓은 작품이 최종후보에 올랐는가 하면, 2001년에는 텅 빈 방에 불빛만 꺾뻗거리는 작품이, 2002년에는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캐스팅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03년에는 구더기들이 시신을 갉아먹고 성행위를 하는 섹스머신 조각이 수상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일련의 터너 수상작 또는 후보작들이 보여주는 것은 과연 이들 작품의 미적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어째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수상작에 오르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 작품은 지오토(Giotto)나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렘브란트(Rembrandt)와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미술과는 천양지차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거나 모방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20C 추상회화의 형식주의적인 미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삶에 관한 성경적 가치가 힘을 잃어가면서 의미의 고갈과 미의 붕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객관적인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예술품을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이 기껏해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일탈적’(transgressive) 예술에 집중하는 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는 일 뿐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숙고해야 할 문제는 가치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적 비전에 적합한 미의 기준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일일 것이다.



그림 1.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그리스조각의 모작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 헬레니즘 미술의 미

고전주의의 옹호가인 빙켈만(J.J.Winckelmann)은 그리스 미술이 찬란한 꽃을 피웠던 것을 비옥한 환경에서 찾았다. 천혜의 자연과 물질적 풍요가 그들에게 뒷받침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연희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여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련된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누드 조각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그리스인들은 운동경기를 할 때 알몸으로 했는데 그리스 미술가들은 그들의 육체미를 한층 돋보이게 한 셈이다. 이렇듯 고도로 발전된 신체 문화, 신체숭배의 문화가 특별히 아름다운 신체를 형상화할 수 있었던 미술의 배경이 된 것이다.

그리스 미술가들은 인체의 미는 수의 조합과 비례로 획득된다는 인식 하에 그들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체계화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이상적인 육체의 표준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카논'이라고 불렀다. '카논'은 인체의 완벽한 비례조건을 뜻하는 것으로 인체가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머리 부분이 신체의 1/7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 프락시텔레스(Praxiteles)는 이러한 카논에 의거, 아름답고 균형잡힌 인체미를 가시화시킨 인물이다. 등신대 크기로 제작된 최초의 여성누드 조각으로 유명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Aphrodite of Knidos)(그림1)는 '완전한 누드의 여신상'으로 불리며, 아름다운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은근한 눈빛으로 관능미를 자아내고 있다.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은 미의 여신은 보는 이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한손으로는 음부를 가리고 수줍은 듯 상체를 약간 숙인 포즈를 취하여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육체미에 대한 열광은 르네상스로 이어진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왜 별거벗고 있는지 언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16세기 이탈리아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나체'(bel corpo ignude)를 힘, 영웅적 용맹, 혹은 정신적 승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미의 관점이 완벽한 육체미에 대한 동경이었다면, 이탈리아인들은



그림 2. 렘브란트, 〈두 명의 여성거지 습작〉, (1632년경)

그것을 기독교의 서사와 접목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아름다움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리스적 전통에 따르고 작품주제는 교회의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발전되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파엘로(Raphael)의 <시스티나 마돈나>(Sistine Madonna, 1512)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지시에 따라 라파엘로가 시스토교회의 제단화용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조르지오 바자리(Giorgio Vasari)가 “참으로 진귀하고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했을만큼 라파엘로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일차적으로 제단화로 그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앙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빙켈만은 마돈나의 얼굴에서 “영혼의 차분함을 느끼는 자세, 고대인이 자신들이 만든 신의 형상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요함”을 보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화면에 등장하는 마돈나는 공교롭게도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던 여인상과 흡사하다. 시간이 천년 이상 흘렀건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체미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데 교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착의(着衣)를 하고는 있으나 그녀의 얼굴은 아프로디테와 다르지 않으며, 그림내용 역시 완벽한 이상미를 추구하였던 고대인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이처럼 숭고하고도 티없는 인간의 이상형을 보여준 아프로디테나 마돈나상은 로마인들에게 계승되었으며, 르네상스인들에 의해 부활되어 나중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인체를 미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기획은 허버트 리드(Herbert Read)가 말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제 상태와는 동떨어진, 먼 고장의 고대 사람들에 의해 전개된 인간의 한 전형의 이상화”에 그칠 뿐이다.

### 기독교 미술의 미

과연 완벽하거나 영웅적인 인간만이 미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완벽한 인간상은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그리스인의 사상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런 관점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뒤러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으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고 판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신칼빈주의자 H. 로크마커(Hans Rookmaaker)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의견도 피하면서 전통적 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를 조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름다움과 진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예술가가 악한 것을 악하게 묘사하고 절망을 있는 그대로의 절망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진실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한 것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의 아름다움의 기준속에는 종래의 완벽성, 초월성, 이상미와 대조적으로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한계상황속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의 미술가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완벽한 이상미의 추구보다는 죄인된 모습 또는 무언가 결핍된 존재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암울한 세상속에서 신음하는 인간과 타락, 그리고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인간상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인간상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 측면은 렘브란트와 고뇌하는 현대인에 주목한 루오, 빈민화가 반 고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반 고흐, 〈감자먹는 사람들〉(1885)

렘브란트(Rembrandt)의 〈두 명의 여성거지 습작〉(Two Studies of a Beggarwomen)(그림2)은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를 묘사한 작품이다. 화면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아이는 엄마의 발꿈치에서 곤히 잠을 자는 모습을 신속한 소묘에 의해 그려낸 것이다. 여기에는 고전미술에서 보이던 거창한 이데아의 추구나 어떤 관능미의 과시, 이상주의도 발견할 수 없다. 대신 그의 손은 뼈마디만 남은 채 앙상하고 얼굴 또한 초췌하기 그지없다.

조르주 루오(Rouault)의 〈창녀〉도 같은 맥락에 있는 작품이다. 창녀를 주제로 삼은 루오의 대담성도 놀라지만 이 그림은 원색적인 칼라와 격렬한 필선 등 표현자체도 꺾이나 과감하다. 지금 그림의 주인공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있는데 그녀의 몸은 아프로디테나 비너스처럼 아름답고 균형이 잡혀 있기도는 고달픈 삶으로 찌들어 있다. 보티첼리(Botticelli)라든가 지오르지오네(Giorgione)의 비너스들을 볼 때 느끼는 희열 넘치는 감정들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시름에 젖어있고, 배는 불룩하고 가슴은 축 쳐져 있어 고전미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충격을 안겨준다. 완벽한 몸매의 여성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진 한 영혼을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루오의 과감한 인물해석에 일조를 한 사람은 반 고흐(Vincent van Gogh)이다. 반 고흐는 뉘엔의 농부들을 모델로 한 〈감자먹는 사람들〉(1885)(그림3)에서 “나는 램프의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접시의 감자를 먹는 그 손으로 대지를 팠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어. 따라서 그 그림은 손노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이 양식을 정직하게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라고 밝혔다.

고흐의 작품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고전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레나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형태는 왜곡되어 있고 어떤 우아함이나 고상함을 찾아볼 수 없다. 반 고흐는 비레를 중시하는 아카데미한 미술을 바리새인과 같다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화려한 외형만 인식할 뿐 인간의 참다운 실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흐는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 공허의 미학

이들 작품의 밑바탕에는 케노시스(Kenosis)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피조물과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빌 2:6-7).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내내 죄인들과 함께하셨고 인류의 대속물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말해 수난과 죽음(추)을 겪으심으로 영광의 보좌(아름다움)에 오르셨다. 우리는 이러한 일체의 과정을 우리는 '끝없는 하향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자들은 중세인들처럼 완벽, 질서, 조화의 감각을 체현함으로 초월로 비상하려기보다는 미와 추, 기쁨과 고통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에 더 초점을 맞추어왔다. 다시 말해 타락 후의 세상을 직시하며 찢기고 상한 영혼들과 함께하는 공허의 미학을 표명해 온 것이다. 기독교 작가들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의 편에 서면서도 막시즘의 계급투쟁론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미술사학자인 존 월포드는 이것을 '손상된 아름다움(Broken Beauty)'이라고 하였는데, 현대미술의 그로테스크한 세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구속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이야말로 은혜에 대해 배경음악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미술가들은 '폭력적인 세상' 못지않게 '회복'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의 화목을 베푸신 것처럼 기독교미술가들은 자연과의 화목, 인

간 사이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살림의 미학을 구현하기도 한다. 기독교미술가들이 단절된 관계를 복구하는 데에 특별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은 다른 예술가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기독교미술가들은 한편으로는 난파당한 세상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도래할 완전한 나라에 대한 기대심을 나타내는 역설을 노출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그러진 세상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름다움을 완벽한 인체에서 찾았다면, 기독교미술은 인간의 연약함과 신적 은혜의 만남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체를 구태여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전적으로 육체에에만 매달리는 것은 인체를 절대시하고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런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는 문화를 제대로 창출해낼 수 없다. 반면 기독교미술가들의 아름다움은 앞에서 언급한 미술가들의 예에서 보았듯이 삶의 실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인식하였다. 인간의 비극적 타락이 인간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못했다.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뒤틀린 거울처럼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을 반사한다. 툴리안 차비진(Tullian Tchividjian)의 말에 따르면, 뒤틀린 거울이기는 하나 여전히 거울은 거울인 셈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천년 이상 찬란한 헬레니즘 예술의 시대를 구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상하고 깨진 영혼에 주목하는 '손상된 아름다움'이다. 진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자유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아름다움을 표현(잠 8:30)함과 동시에 죄와 비참함에도 눈길을 돌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대장정에도 적극 앞장서왔던 것이다. ☺

# 칼뱅은 예술을 어떻게 보았는가?



**최태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자 백석대학교 기독교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자 한민족교류재단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 인문주의자 칼뱅

칼뱅은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르틴 루터가 1483년생, 26년 후인 1509년에 칼뱅이 태어났으니 말이다. 칼뱅과 루터는 민족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루터가 전형적인 독일인이라면, 칼뱅은 전형적인 프랑스인이다. 칼뱅은 파리 북쪽 피카르디 지방의 노와용(Noyon)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집념이 강한 소시민이었던 아버지 제라르는 총명한 칼뱅을 성직자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고향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칼뱅은 파리의 몬테귀대학에서 신학과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오를레앙과 부르제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1532년 23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출판, 프랑스의 촉망받는 인문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533년에 일어난 필화사건이 그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절친한 사이인 니콜라 콕이 파리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취임설교를 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칼뱅 역시 위험을 피해 개신교 도시인 스위스의 바젤에 정착하여 인문주의 저술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1536년 그는 고국인 프랑스에 잠시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네바에서 며칠을 묵게 되는데, 여기서 제네바의 개혁자가 탄생하게 된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펼치던 정열적인 파렐 목사가 칼뱅 같은 인물이 제네바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한 것이다. 파렐의 요청에 칼뱅은 제네바에 머물며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고 제네바를 유럽 개혁교회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칼뱅은 루터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에 뛰어들었고 평생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사상적 배경은 루터와는 다르다. 루터는 독일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로 중세 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적으로는 합리적 논증의 한계와 의지의 중요성을 발견한 오캄의 유명론이 사상의 토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타올러나 아캄피스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반면 칼뱅은 로이 힐린과 부데, 에라스무스 같은 인물과 인문주의 교육의 영향 하에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여러 대학에서 교육받았으며 프랑스 인문주의자 르페브르 데타플의 제자였다. 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그리스와 로마 고전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후에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에서 아낌없이 발휘된다. 칼뱅은 기독교의 계시 위에 확고하게 서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통해서 신학과 철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종교개혁자이면서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 인문주의자(humanist)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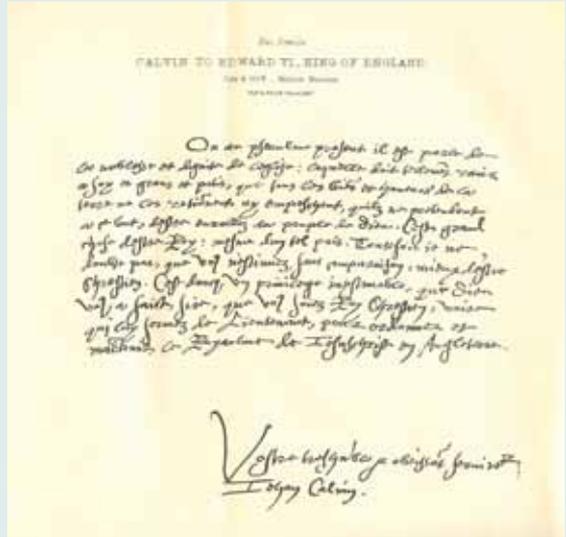
## 성상반대론자 칼뱅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 후기에 성상반대론이 힘을 얻으면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가톨릭교회의 무분별한 성상옹호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에라스무스나 르페브르도 성상숭배의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칼뱅의 성상반대론은 어떻게 정립되었을까?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상숭배를 비판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멀리하였다. 그는 출애굽기 20:4에 근거하여 우상숭배를 경계하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반대했다. 구약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을 뿐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다. 또 신약시대에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그 형상에 대한 숭배를 막기 위해 즉시 사라지셨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칼뱅은 예술적인 재능을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보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은사가 인간을 덮고 있는 죄와 무지 때문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술은 자기애(amor sui)와 야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선하며 사회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민중이 성상과 성유물을 숭배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1543년 『성유물에 대한 비판』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본 교구의 성상에 대한 관습을 생각해 본다. 성 스테반의 축일이 오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인 폭도들의 형상도 스테반의 형상과 함께 정성껏 모자와 리본으로 장식했다. 순박한 여성들은 이렇게 장식된 폭도들조차 성자의 무리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양초를 바쳤다. 그와 같은 일이 천사장 미가엘과 싸운 악마상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sup>1)</sup>



그는 형상, 즉 성상을 통한 예배를 전적으로 거절하면서, 성상에게 드리는 존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dulia)이지 예배(latria)가 아니라는 로마가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은 인간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봉사를 넘어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예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 수사학자 칼뱅

칼뱅은 웅변을 ‘말 잘하는 예술’이자 가장 큰 예술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아하게 화제를 이끌어 가면서 복음을 설득하는 웅변술을 인정했고, 특히 이사야서에 이러한 수사적 웅변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sup>2)</sup> 인문주의는 고대의 수사학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수사학은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관습적 도구라는 점을 처음으로 간파한 프로타고라스, 수사법을 체계적인 교육학으로 정리한 이소크라테스를 거쳐, 로마의 키케로, 퀸틸리안 등에 의해 확립되었고 르네상스와 북유럽 인문주의자들(로렌조 발라, 쿠자누스, 로이 힐린, 위클리프, 에라스무스)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은 성경 자체의 언어와 사상에 집중함으로써 기독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했다.

1) 장 칼뱅, 『성유물에 대한 비판』, 김동현 옮김 (서울: 솔로몬, 1993), 102.

2) Joannis Calvini, Opera omnia VIII, 169.

칼뱅에게 언어는 ‘인간사회를 묶어주는 접착제’로 인간성(humanitas)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성경해석에 대한 수사학적 원리를 ‘간결’(brevitas)과 ‘용이’(facilitas)로 규정하면서 철학적이거나 우의적(allegorical) 해석을 피하고 성경언어의 단순하고 구체적인 파악을 중시하였다. 또 인간의 특별한 감정을 전달해주는 언어의 능력도 중시하였는데,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의 생생함을 드러내는 수사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것은 내 몸이다.”(막 14:22, 고전 11:23)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찬식의 떡(빵)이 실제로 몸으로 변화한다거나 단순한 언어적 상징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적 실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환유(metonymy)라는 것이다.

**예술의 옹호자 칼뱅**

칼뱅은 『기독교 강요 Chriatianae Religionis Institutio』 2권에서 예술과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았다.

“우리 중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예리한 능력은 예술과 과학을 배우는 데서 나타난다...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해야만 하는 이러한 선함은 여전히 보편적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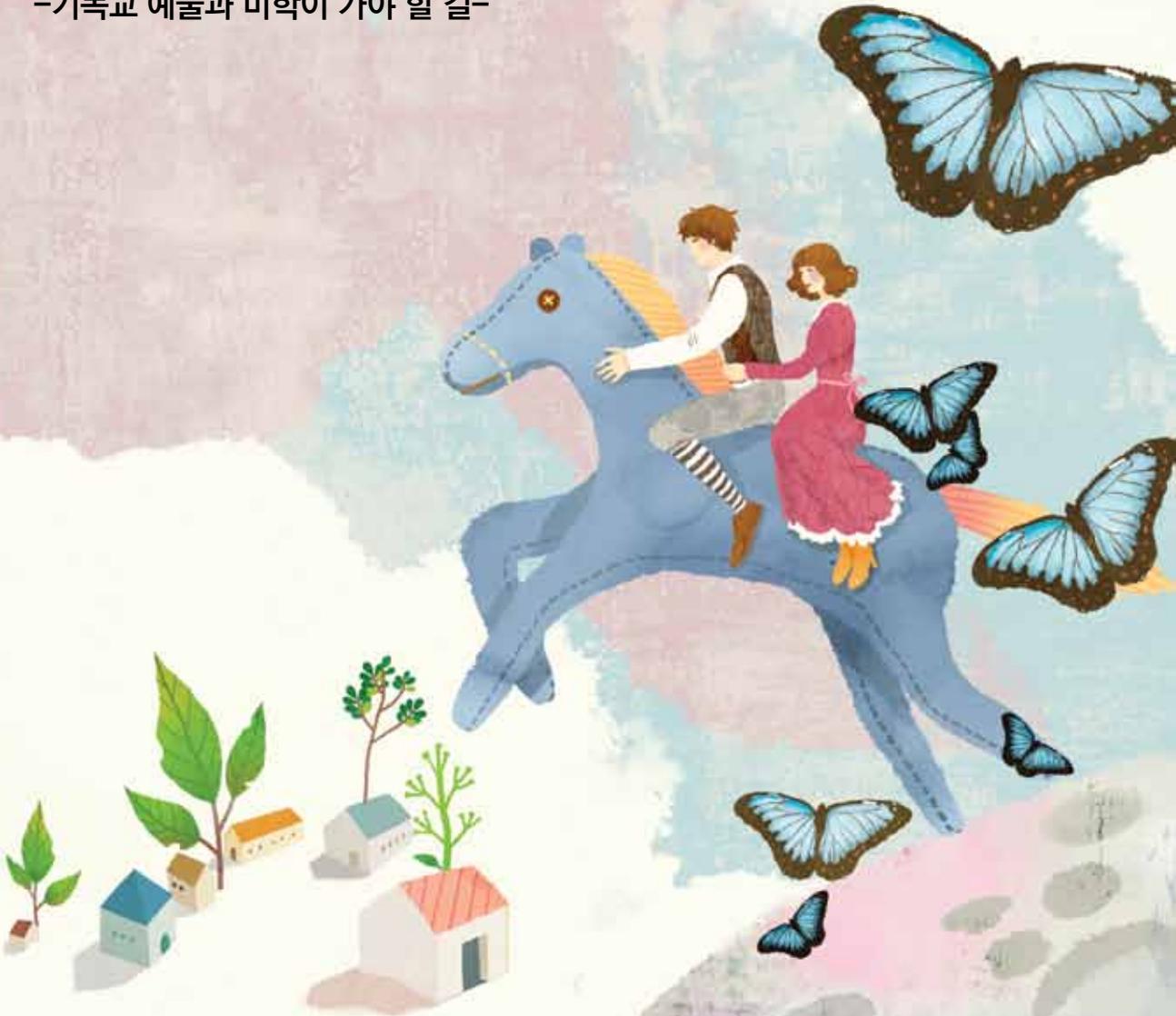
칼뱅에게 예술과 과학은 성령께서 인간의 공동선을 위해 나눠주신 은사였다. 예술은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인간의 창의적 행위였다. 그는 창세기 4장의 유말에 의한 예술의 시작에 감탄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성령의 뛰어난 선물’로 보았다. 칼뱅은 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로마서 1:19-20)에 근거하여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극장’(a theatre for God’s glory)이라고 보았다. 칼뱅은 죄에 의해 오염되고 일그러진 세상보다 더 높은 현실, 즉 타락 이전 창조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여주는 역할을 예술이 한다고 믿었다.<sup>4)</sup> 따라서 그는 당시 교회로부터 ‘세속적’이라고 비판받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예술가들을 격려했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미적 표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그는 이 ‘들음의 길’이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즉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되는 하나님의 영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칼뱅의 신학적 통찰력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로 대표되는 네덜란드의 바로크 미술과 컨스터블, 허드슨 강 유파에 의해 꽃핀 영국과 미국의 낭만주의 미술은 인간과 자연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칼뱅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 받아 우상숭배적 결과를 내지 않으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표현하는 예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㉞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II, ii, 14.  
 4) Peter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8), 210-211.  
 5) 에밀 두메르그, 『칼뱅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85-89.

# Art in Action

-기독교 예술과 미학이 가야 할 길-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IVP) 등이 있다.

예술에 대한 통찰은 개신교가 회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전후하여 성상논쟁을 포함한 예배 갱신 논의를 통해 예술에 대해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성상반대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려는 목회적 관심만큼이나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발전시키지 못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와 특히 18세기에 들어와 아름다움과 예술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태동한 근대미학의 강한 반기독교적 성격도 개신교가 예술과 미학을 도외시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술에 관심을 쏟은 칼빈주의자들이 있었다. 종교 연구와 미학의 통합을 시도한 반 더 레우(Gerardus van der Leeuw)가 좋은 예다. 그는 예술과 종교가 대립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는 현대적 사고를 비판하며 춤과 드라마, 문학, 미술, 건축, 그리고 음악의 원시 형태는 모두 종교에 뿌리를 두고 발생하여 예술로 분화·발전했다는 이론을 세웠다. 칼빈주의가 예술도 국가, 교회, 가정, 학교와 더불어 독립적인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가진다는 점을 확립해 예술이 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원리에 따라 발전토록 했다는 카이퍼의 주장도 빈 말이 아니다. 이 분야의 연구가 네덜란드의 한스 로크마커, 캐나다의 칼빈 시어벨드, 그리고 월터스토프 같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예술이론을 개발하려는 이들은 현대서구미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서 출발한다. 현대미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신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기초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의 심미적 차원과 예술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규정하려 한다. 예술도 다른 문화적 활동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소명임을 강조한다. 예술은 사치이거나 장식의 아니다. 예술은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관적 기구이다. 특히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 나라의 적법한 일부로 창조주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 세계투영행위, 예술

월터스토프의 주장에 주목해보자. 그가 이러한 관점을 전개하기 위해 택한 전략적 출발점은 “예술은 행위”라는 논제로,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미학의 근본 논쟁점에 대한 그의 답이기도 하다. 월터스토프는 예술을 세계의 모방으로 보는 표상론(表象論)을 반대한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예술이 일종의 언어로 인식적 기능을 하므로 과학과 기능상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미학자들은 예술품은 지시 대상이 없는 언어이므로 진위 판단이나 인식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표상에서 예술의 실재적 속성을 찾으려는 이론은 난관에 봉착했다. 비구상적인 회화나 조각, 특히 심포니 음악이 무엇의 모방이며 표상인지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현론(表現論)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을 진리나 실재의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한편 형식론(形式論)은 예술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실재하지는 않으나 어떤 사물 현상 또는 행위의 보편적이며 불변적 요소인 형식의 심미성으로 규정하면서 예술품을 예술의 질서 안에 있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술이론들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데 있다. 각자 예술의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그 본질을 가지적이고 실재적인 속성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단토(Arthur Danto)나 디키(George Dickie)처럼 제도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입장들과 달리 월터스토프는 예술의 본질을 창작이나 공연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 투영(投影)”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예술은 행위를 유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주의적 예술관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예술을 일상의 탈피나 고상한 경험을 위한 것으로 보는 근대미학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예술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 표현이나 관객의 느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행위이며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일을 같이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예술의 가치는 창작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대상을 제공하

는데 있다. 예술품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다른 부분과의 연관을 부정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오류이다. 이는 18세기에 고급예술의 기구가 형성되면서 문화 엘리트들 사이에 조성된 관점으로, 결국 예술을 감상용으로 전락시키거나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예술가와 미학자, 비평가 모두가 이 생각에 빠져서 예술이 삶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윌터스토프는 찬송가를 예로 들어 감상용이 아닌 예술이 가득함을 상기시킨다. 예술이 삶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인간의 의도를 행하는 수단이요 목적인 이상, 그것은 삶 속에서 하는 다양한 행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예술을 축소하고 삶과의 연관도 축소될 위험이 있다. 예술은 감상이라는 한 가지 지배적인 목적에만 종사하지 않고 다양하고 유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의 보편성이나 예술의 공적(公的) 사용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윌터스토프의 목표는 심미적 감상에 기초한 수동적이고 정적인 예술 개념을 비판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르네상스로부터 18세기 미학과 학문, 그리고 19세기 박물관의 등장까지를 집중 분석하며 예술계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내면화 되어가는 과정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인류학적 통찰과 심리학의 결과들을 사용하여 예술의 맥락과 기능을 넓힌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일상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한편, 특별한 학습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고급예술의 독재를 깨뜨리려 한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현대 예술의 이상화와 종교적 함축을 강하게 비판한다. 예술은 신이 되거나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 창조주를 섬기는 인간적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에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오만하게 부각시키는 대신 겸손히 섬겨야 할 책임이 따른다. 예술 자체가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고급 예술의 고압적이며 자율적 태도는 사회적 연관성을 상

실케 해 예술의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이전에 교회가 그러했듯 고립 대신 공동체의 깊은 확신을 드러내는 예술이어야 한다.

윌터스토프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의 이해를 제시한다. 그는 예술이 피조물적 인식과 청지기적 소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예술계에 널리 퍼져있는 해방으로서의 예술 개념을 넘어서는 생각이다.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독특하다고 했다. 인간만이 자유롭게 주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과 책임 규약으로 묶여있음에 기초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책임은 자유를 전제하며 상상력 또한 요구한다. 인간은 자연세계에 부과된 질서를 정복할 책임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술가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자연을 살림의 추구로 가꿀 정원사로서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 예술의 사명

기독교 예술의 사명은 변혁과 살림의 실천으로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속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상과 표현에 기초한 세계 투영을 통한 비판과 통찰, 안목 열기, 세계관 기구의 역할이 포함된다. 이는 일종의 선지자적 사명이다. 예술은 또한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여 공동체의 축제의 중심에 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는 “구속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사명들을 수행해야 한다.

로크마커나 시어벨들도 이 점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 예술이 자기 표현이나 예술을 위한 예술, 정치적 이데올로기, 상업적 목적에 종사하는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술에 대한 바른 관점과 유기적 연관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시장에 의해 조정되고 평론가들에 의

해 좌우되는 고급예술 관점에 참여하곤 했다. 기독교 예술도 대중화와 대량화를 피할 수 없는 시대이다. 기독교 현대음악(CCM)의 예처럼 상업적 구조와 속성을 온전히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은 세상의 변혁을 통해 살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술도 기독교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기독교 미학의 중심주제이다.

### 오늘날의 예술,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이런 기독교 미학이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고대와 중세가 신학의 시대요 근대가 철학과 과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미학의 시대이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미학 논의는 예술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윤리 문제를 포함하곤 한다.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그렇다. 오락과 연예로 가볍게 취급되는 대중예술은 본질상 세계 투영을 통한 예술 본연의 교육과 연예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중예술에 관한 논의는 예술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이며 윤리적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며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기초가 요구된다. 오늘날 문화예술 연구에서 해석학적 접근이 중시되는 것도 예술의 본질과 역할을 결코 삶의 복잡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은 언제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예술이 삶과 자연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능한 세계를 제시함이다. 예술은 단지 감상용이거나 장식용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종교 역시 부차적인 요소로 삶에 부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삶의 근저에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과 문화에 가깝다. 종교는 교리와 상징을 통해 본질상 보이지 않는 신과 영혼 같은 영적 실재를 드러내고 형상화한다. 이는 우상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신앙은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의 말처럼 문화는 “종교의 구현”이며 삶으로 실현된 종교이다. 미학이 기독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기독교 문화이나 음악, 미술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 문화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독창성과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독교 예술이론 또는 미학은 예술 일반과 감성주의 문화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이론이 예배 갱신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작업에서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술과 미학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로크마커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16-17세기 네덜란드에 기독교 미술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신학적 개혁 후 100년이 넘는 인내와 긴 세월의 작업이 필요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는 예술도 변혁의 대상이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예술이 변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깊이 사고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 후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세계가 무신론적으로 된 것은 무신론자들이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헌신적 실천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했고 현대의 경향성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형성된 현대 무신론적 문화와 예술이 세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60년대 록 음악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라. “기독교적 상상력에 기초한 창조적이고 흥미롭고 훌륭한 기독교 음악이 유행했다면 기독교는 훨씬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로크마커의 이 말은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예술과 그에 관한 연구가 왜 절실한지를 역설해준다. ☺

# 아름다움을 생각하다



**안용준** 중앙대학교 독문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예술학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동 대학원 기독교철학과에서 '현대 개혁주의미학'을 연구하여 철학박사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미학미술사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기독교미술과 겸임교수이며 연희동 원천교회 협동목사, 미술 선교단체인 '아트미션(Art Mission)'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아름다움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기독교미학자인 시어벨트(Calvin Seerveld) 교수는 “순수 예술(the fine arts)의 이념이 학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위대한 (유럽의) 미의 이론들이 쇠퇴하면서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가 비례 및 조화로운 배열에 있다고 하는 중심원리 또는 미의 객관성, 합리성, 형이상학적 토대에 공격이 가해졌던 것이다. 미 이론의 위기 이후, 미는 일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들의 어떤 특별한 비례나 배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론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인식의 혁명적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흥분이나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사물의 재생이거나 형식의 구축 혹은 경험의 표현을 미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흥분이나 충격 등은 일정한 가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들임에도 ‘아름다운’, ‘심미적인’ 등과 같이 가치평가적인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의 많은 화가, 작곡가, 음악가들은 심미적이기 보다는 압도시키고 당황케 하며 노골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험들을 산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외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포괄적인 미의 규칙, 표준, 기준, 규범, 법칙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것 혹은 어떤 한 시대에 의미 있는 것을 논함에 있어, 아름다움과 관련된 자아의 취향, 개인적인 평가 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아름다움은 심미적인 경험을 환기시키기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정신적인 산물 등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넉넉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움을 들여보자. 인생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느낄 수 있다.

## 역사에서 아름다움을 듣다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사고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당시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것들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의 개념은 시각이나 청각에 속하는 형상, 색 또는 음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행위, 법률과 도덕, 과학과 진리에 까지 확대되는 넓은 의미였다. 말하자면 아름답다고 간주된 대상들의 특성에 따라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식의 감각적 미나 도덕적 미 또는 지적 미라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가 도덕이나 진리 등의 가치와는 다른 질서의 가치임을 논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의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의미의 폭이 다르게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은 미를 시각이나 청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정의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경험주의자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의 정의는 스토아학파에 의해서 보다 확대 적용되었다. 그들은 전체로서의 세계에서 뿐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 즉 개별적인 물체와 생물들에서도 미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리스 미학의 주된 전통과 완전히 일치된 답을 내놓고 미는 척도와 비례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이 개념은 정신적인 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미에도 적용됨으로써 보편적인 미의 이념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플라톤은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관해 언급하는 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물들이 지닌 속성들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우선 그는 이데아론의 전개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은 곧 선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미는 물체의 척도와 비례이다. 아름다운 것은 즐거운 것 중의 하나이며, 알맞은 조화이다. 미는 질서 있는 우주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AD 3세기에 활동한 플로티누스(Plotinus)는 미가 주로 시각이나 청각의 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성의 범위를 넘어 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지성이 처세, 행위, 성격, 지적인 추구 이외에도 도덕적인 미가 존재함을 인식 한다고 설명했다.

플로티누스에 의해 확고하게 마련된 아름다움의 미학은 기원후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3-430)에게 전승되었다.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진 아름다움의 미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영혼(Psyche)은 정화되어 정신(Nous)의 단계에 다다르고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일자(Hen)에 일치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의 가르침대로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를 갈망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74)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에서 사고하고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의 유비적 간극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에 관한 그의 논리는 높은 수학적 플라톤화 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미학의 세 가지 핵심 원리인 완전성, 조화 그리고 광휘이다. 첫째, 이 원리는 인간의 미학적 삶을 이상화시키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유형에 아름다움의 미학을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이 미학 원리는 동시에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로 향하는 미학 체계를 구성하였다.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아름다운 시각에서 비롯되었듯이 사물의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에도 아름다움의 미학은 새롭게 조명되었다. 스콜라 미학의 성숙된 체계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동맥경화의 증세가 점차로 생겨났다. 이즈음에 새롭고 희망찬 미학은 부활된 플라톤주의 즉 신플라톤주의였고 이것은 피치노 중심의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열정으로 배워지고 가르쳐졌으며 새로운 측면에서 성찰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미학적 견해에 반영되었고 당대의 예술에 관한 사변적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미의 전통은 20세기에도 계속된다. 네덜란드의 종교 해석학자인 게라르두스 반 데어 레이위(Gerardus van der Leeuw, 1890-1950)는 예술과 종교의 공통점을 특히 기독교적 문맥 안에서 연구하였다. 예술의 창조적 활동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적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프랑스의 토마스주의자인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 1882-1973)은 1952년 Mellon강연에서 예술적이며 초월적인 미의 신학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시기는 우리를 신비적 특성의 감각으로 일깨워서 존재의 근원으로 이끄는 길로 안내한다. 이 창조적 경험 안의 아름다움은 그 본래적 성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아름다움을 향수할 수 있는 감성적 지식을 가져다준다.

**신플라톤주의로 알려진 아름다움의 미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강한 열망과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영혼(Psyche)이 정화되어  
정신(Nous)의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일자(Hen)에 일치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의  
가르침대로 초월적 아름다움의 세계를 갈망했다.**

### 창조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배우다

아름다움의 미학의 특성은 기독교의 전통 내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출발했다는 점에서 위의 경우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창조성의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예술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만제시의 하나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언제나 현재형으로 실제로 생명 안에 계속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증거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계시록에 다시 나타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계 21:27). 정교하게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의미가 인간의 보편적 믿음 안에서 지속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의 전통은 이러한 성경적 전개를 창조세계 안에 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가 의미하는 원래 만들어진 세상의 상황 그리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우리의 미학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학 상의 전개는 원래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재확인한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처음에 죄로 인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선한 창조를 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도록 만드시고 그 안에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은 그와 언약을 가진,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아름답게 개혁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선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떠나서는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원초적 죄의 뿌리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의 능력을 초월”하여 위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는 인간 세계를 행복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는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들려주는 다양한 이론적 또는 실천적 지식들로 가득하다.

특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들려지는 창1:28 말씀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문화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문화소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변혁시킴으로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부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하고 질서 있는 삶을 선사하기 위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단순한 존재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고 반영하며 올려 퍼지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

이재철 목사의 사도행전 설교집

9

사도행전 15장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재철

초판 한정

이재철 목사의 주례 설교 노트 15권

# 사도행전

## 속어로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를 잇는

믿음의 징검다리!

1 사도행전 1, 2장

기도에 힘쓰더라

2 사도행전 3, 4, 5장

예수로 말미암아

3 사도행전 6, 7장

하나님이 그와 함께

4 사도행전 8, 9장

택한 나의 그릇

5 사도행전 10장

내가 보내었느니라

6 사도행전 11, 12장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이라

7 사도행전 13장

이방인의 개로 향하느니라

8 사도행전 14장

바로 믿음의 선라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





## 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 (www.calvin.edu/admin/cccs)

미국 미시간(Michigan)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시에 있는 저명한 기독교 대학인 캘빈 대학(Calvin College) 안에는 기독교학센터가 있다. 1976년에 설립된 이 센터는 헌신된 기독교학자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저술하도록 돕고 있다. 설립 이후부터 본 센터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97권의 책들을 출판했으며 그 중에는 2판에 들어간 책들도 많다.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으며, 강의들이 제공되었고 컨퍼런스들이 개최되었으며 공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다. 설립자들의 비전과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본 센터는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독교 학문 연구 프로젝트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롬(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퀘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뮌헨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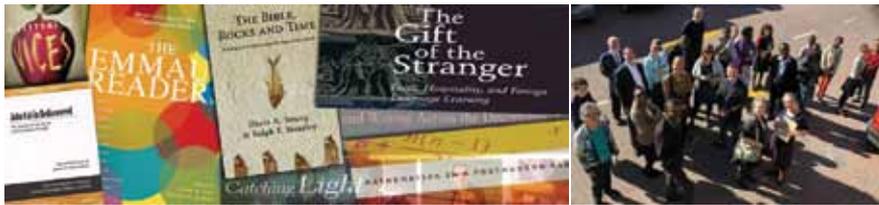
본 센터는 일차적으로 캘빈대학에서 기독교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리더십 제공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구조의 윤리적 함의들, 연구 방법들, 사고하는 방식들,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술 작품들 또는 학문적으로 보다 비판적인 적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전문성을 통해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대중들에게 교회와 사회 그리고 학계에 중요한 관심사들을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기독교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신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본 센터는 나아가 기독교학자들이 현대 학계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책들을 출판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본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성경적인 지혜와 개혁정신을 진흥시키기 위해 연구분야에 헌신한 기독교학자들의 노력이다. 본 센터는 또한 개별 학자들이 다양한 전통을 통해 동료들을 발견하여 함께 사역하도록 하면서 전문가와 평신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본 센터는 캘빈대학의 교수진들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학자들과도 연계하고 있다.

본 센터를 섬기는 직원들로는 영문학 교수인 수잔 펠취(Susan M. Felch) 박사가 소장으로, 대일 윌리엄스(Dale Williams) 등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있다.

또한 본 센터는 매년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센터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



# 직장영역

##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악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중 직장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 1. 출퇴근길, 자가용 대신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기

2013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녹색생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근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승용차 및 소형승합차>가 45.9%로 가장 높았다. 게다가 도로 위 자동차 10대 중 9대가 운전 자 홀로 타고 있는 '나 홀로 자가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자가용 사용은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산성비,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등의 원인이 된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중형승용차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시내버스 1대는 승용차 40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연료도 절감하고 오염물질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도로혼잡이 감소되고, 주차비용 절감, 차량 유지·관리비용 절감, 도로건설 및 보수비용 절감 등 부수적인 이득이 많다.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사용으로 지구 건강도 챙기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도로 위 자가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가용을 함께 타고, 나눠 타는 방법이 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것이다. 최근 카풀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되어 어렵지 않게 카풀 친구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자가용을 나눠 타는 카셰어링(Car Sharing) 등이 있다.

자가용은 실제 약 3%의 시간에만 사용되고 나머지 97%의 시간은 주차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유지비용이 세금, 보험, 유지수리비, 주차관리 등으로 계속 지출된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함께 나눠 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자발적 불편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나친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함께 만드는 즐거운 회식, 섬김의 자리로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 회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회식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낭비적인 요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회식 자리에서도 자발적불편 정신을 가지고 직장과의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첫째, 창의적인 회식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회식은 서로 간의 화합이나 환영, 송별 등 다양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함께 상의하여 문화, 레포츠, 맛집투어 등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 보자. 회식 때만큼은 존댓말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친목 도모의 자리에서 무슨 존댓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존댓말을 하면 말을 더 부드럽게 하게 된다.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이나 거친 대화들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한 마디 씩이라도 칭찬 또는 격려의 말을 해보자. 질책과는 다르게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해도 좋으니, 회식 중에 공개적으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좋은 추억으로 그 회식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넷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자. 회식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도중에 불가피하게 먼

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 자신들이 편한 교회나 신우회 같은 곳에서만 교제를 나누려는 태도를 버리고 회식자리에 끝까지 남아보자.

다섯째, 기록을 남겨보자. 회식 후기를 남겨서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직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즐거운 추억들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이다. 회식 과정에서 찍은 사진과 오갔던 좋은 대화를 공유하면, 모두 같이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후기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새로운 제안을 덧붙이게 되면 더 좋은 회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3. 말 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사람들은 친구, 배우자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하루 중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935명의 직장인 중 3분의 2인 60.3%가 '조직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소통은 주요한 핵심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불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상명하복식의 위계문화(32.3%),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 부서 이기주의(32.1%), 지나친 단기 성과주의 강조(31.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까라면 까'야만 하는 잘못된 군대문화가 직장 내로 연결되고, 보다 거슬러 올라가 '군신유의', '장유유서'의 유교전통이 왜곡된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아닐까?

또 업무공유는 간결하고 선명하게 하고, 마음의 귀를 열고 한 발짝 다가 보는 것이다. 한국 직장인의 대표적인 고충은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58.6%)이 가장 높고 '일과 생활의 균형 미흡'(47.4%)과 '직장 내 인간관계'(39.7%)가 뒤를 이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상사들의 신뢰와 동료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는 업무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업무 지시를 한 상사의 신뢰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고, 동료의 지원은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업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정서적 연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소통에 기반한 업무의 의미,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속된 협업으로 만드는 조직 내 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역량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기윤실 사무실 내에서 실천중인 자발적불편

1. 장바구니 사용
2. 텀블러 사용 (행사시에 스테인레스컵 사용)
3. 재생종이 사용
4. 이면지 적극 사용
5. 택배박스 재사용
6. 재사용 가능 우편봉투 제작
7.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plus

#### 직장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안 쓰는 모니터 꺼놓기
2. 에너지 절약 책임자 지정하기
3. 물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4. 서류봉투와 택배상자 재사용하기
5. 공동물품 잘 정리하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6. 업무시간에 딴 짓 하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말자
7. 공적인 물건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말자
8. 최고결정권자가 단독 결정하지 않기
9. 타인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기
10. 직장동료의 강점을 칭찬해주기
11.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 도와주기
12. 정의를 위해 일하기
13. 회사 앞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 방문하기
14. 도시락 싸워서 나눠 먹기
15. 어렵고 귀찮은 일은 내가 먼저 맡아서 하기
16. 건물 내에서 발소리 조심하기
17. 여력이 될 때 업무 많은 사람 도와주기
18. 동료들과 즐거운 모임 주최하기
19. 담배는 제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기
20. 밥 먹고 나서 양치하기
21. 서로에게 배우기(재능 나눔)
22. 회사 주차장에서 불편한 자리에 먼저 주차하기
23. 영수증 정직하게 주고받기
24. 근로 기준법 준수하기
25.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기

\*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http://www.cemk.org)

서평

#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 책의 내용과 구조 소개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하 「두 대적」)은 책자의 표지에 묘사되었듯 「신사도 운동」과 「변질된 현대신학」을 겨냥하고 있다. 저자인 김재성 교수는 목차와 서문에서 신사도 운동을 저급한 기독교 운동으로, 변질된 현대신학을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신학 운동이라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운동이 겹보기에는 상극적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성경의 절대적 교훈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고발한다. 따라서 책의 내용 역시 자연스럽게 1, 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저급한 기독교 운동”에 관한 것으로서, 소위 신사도 운동/직통 계시파/성령 운동의 계보·활동·양상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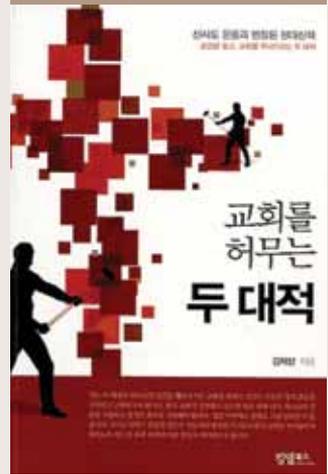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제1부의 주제/제목은 다음과 같다.

- 1장 신사도 운동의 핵심사상과 그 신학적인 이단성
- 2장 신사도 운동, 그 근원과 전개
- 3장 최고 예언가 폴 케인의 몰락
- 4장 국제기도의 집(I.H.O.P.)과 마이클 비클의 문제점
- 5장 비클과 직통 계시파의 문제점
- 6장 자칭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실상
- 7장 마이클 비클의 비윤리적인 언행들
- 8장 가짜 부흥운동의 이합집산

제2부는 전체 제목이 “고급 기독교가 무너뜨린 성경”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섯 장(9장~1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각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송인규** 2014년 8월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IVF 관련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이상 NVP), 「평신도 신학 1, 2」,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이상 흥성사), 「분별력 1, 2」, 「일반 은총과 문화적 산물」(이상 부흥과개혁사)이 있다.



- 9장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불신함
- 10장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 11장 영성신학의 실상과 허상
- 12장 말씀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 13장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론의 혼돈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2부의 내용이 모두 “변질된 현대신학”에 대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다소 비일관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 9장과 10장 (또 혹시 13장까지)은 전체 제목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11장의 영성신학은 그 연계성이 약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12장은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제2부 본연의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본 논평자는 이 짧은 글에서 「두 대적」 가운데 첫째 부류인 신사도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제2부의 내용은 전기했듯 다소 복잡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논평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한국 교회에 훨씬 부정적이고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 계시 식의 불건전한 경향인 고로 이 내용을 취급하는 것이 좀 더 유의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 「두 대적」이 말하는 저급한 기독교 운동

본 논평자가 보기에 저자인 김교수는 이 책자를 통해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내용 설명을 시도하는 것 같다. 첫째, 이 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인물 간의 사상적 연관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둘째, 이 운동에 관련되는 주도적 인물들의 공통적 주장을 소개하고 동시에 이를 비판하는 일이다. 이제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제1부의 내용을 일별하도록 하자.

### (i) 신사도 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계보 형성.

이 운동의 역사적 뿌리는 19세기 성결 운동(Holiness Movement)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p. 65). 1901년 찰스 파람(1873-1929)은 감리교 목사로서 20세기 방언 운동의 발판을 제공하고(p. 68), 흑인 목사인 윌리엄 시무어(1870-1922)를 통해 오순절 교회의 효시가 마련된다(p. 29). 이 모든 연관자들의 공통점은 데이빗 마이랜드(1858-1943)가 신학적으로 정립한(p. 66) “늦은 비” 사상 -- 20 세기의 성령 은사 운동을 지칭함 --으로 이렇게 저렇게 엮이어 있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에 윌리엄 브래넬(1909-1965)은 초자연적 능력의 행사를 통해 늦은 비 운동을 전개했다(p. 74). 그는 천사의 나타남,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등 각종 신비적 경험을 내세우는 극단적 직통 계시의 원조가 되었다(p. 74). 1940-50년도가 늦은 비 운동의 전성기라면 1960-70년대는 카리스마 운동의 극성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존 워버(1934-1997)의 빈야드 운동이 각광을 받게 된다 (p. 226). 이것을 눈여겨 주목한 것이 당시 풀러신학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1930- )였다 (p. 61). 와그너는 워버에게 <교회성장학> 과목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지만(p. 61), 워버는 신학적 불건전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6년 강의 기회를 뺏긴다(p. 227). 3년 후 워버의 빈야드 운동은 폴 케인(1929- )을 비롯한 “캔자스시티 예언자들”과 단체적 결합을 시도한다(pp. 111, 223). 그러나 이들은 불과 6년 만에 다시금 각자의 길로 들어 서고 만다(pp. 111, 223).

바로 이 어간에 당시로서는 젊은 세대로서 워버와 연대했던 마이크 비클(1955- )은 갈라서는 것을 계기로 독자적 사역을 꾀한다. 그리하여 초기 사역 단체인 <매트로 크리스천 헬로우십>을 거쳐 1999년에는 <국제 기도의 집>(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을 설립했고(p. 111),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피터 와그너는 2000년도부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들을 임명하고, 사도들의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p. 23) 소위 “신사도”라는 용어를 활성화했다. 그러나 비클과 바그너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매우 소원해져 있다(p. 62).

### (ii) 주도적 인물들의 공통적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논평자는 이제 신사도 운동에 연관된 인물들 가운데 네 명 -- 존 워버, 피터 와그너, 폴 케인, 마이크 비클 -- 을 추려서, 이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네 인물은 각각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최고로 존경 받던 예언자, 기도의 집을 통한 예언 사역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가르침에는 네 가지 정도의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무엇이 그런 공통점인가?

첫째, 이들은 모두 현 시대가 하나님께서 의미 심장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임을 천명하고 있다. 워버의 빈야드 운동은 부분적으로 “늦은 비”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pp. 60, 112). 와그너는 2001년을 제 2의 사도 시대라고 주장했다(p. 24). 케인은 25년 만에 재등장하면서(1987년) 자신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pp. 108, 116). 비클 역시 현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끊임 없이 강조하고 있고(pp. 130, 131), 또 늦은 비 운동의 핵심적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다(pp. 155-157).

둘째,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신비적 역사를 표준적인 것으로 가르친다. 워버는 “표적과 기사” 및 “예언”을 빈야드 운동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pp. 60-61). 와그너가 워버의 능력 종교를 지지하고, 또 소위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내세우는 것(pp. 28-34)도 이런 까닭이다. 케인은 오순절은 사파와 성령 운동 및 빈야드 운동의 연관자들이 최

고라고 추양할 정도로 불건전한 은사 운동의 경력이 화려하다 (pp. 96-97, 99). 비클이 주도하는 <국제 기도의 집> 또한 치유·예언·기이한 현상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pp. 122, 126).

셋째, 이들은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덧붙인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다. 워버는 예언·능력 치유·기적적 은사 등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pp. 60, 226-229). 와그너는 “신사도”라는 개념의 발의에 있어서나(pp. 23-24),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과도한 주장(pp. 25-26)을 서슴지 않았다. 케인은 여러 가지 해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 (pp. 99-102), 요엘서 2:5-7에 대한 희한한 해석을 시도했다 (p. 112). 비클은 비성경적 예언 사역에 더해 “신부,” “다윗,” “세레 요한,” “장막” 등에 대해 풍유적 해석을 일삼고 있다(pp. 130, 132-133).

넷째,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일군으로 지목되었음을 스스로(혹은 다른 이의 예언에 의거해) 내세운다. 워버는 풀러 신학원에서 퇴거한 후 케인이 자신에게 해 준 예언 -- 워버가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은 여전히 번창하리라는 것 -- 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 (p. 110). 와그너는 2001년에 스스로를 신사도라 칭했다(p. 23). 케인은 천사의 방문이나 주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부름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pp. 98, 99, 101, 104-105). 비클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초대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p. 167), 또 밥 존스라는 인물이 자신에 대해 “특별한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p. 170)를 내세우기도 한다.

또 저자는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네 명(및 그 이외의 동조자들)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논평자는 그 가운데 다섯 가지 항목을 선보일 것이다.

첫째, 이들은 대체로 정규적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pp. 88, 166, 168-169).



둘째, 이들은 무리한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힌다 (pp. 22-24, 26, 30-39, 42-50, 65-68, 79-84, 124-125, 130-141, 146-157, 178-180, 182-187).

셋째, 이들은 신앙 생활의 표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두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더 앞세운다 (pp. 21, 28, 32, 35, 42-43, 44-48, 60, 68-70, 74, 88-90, 97-105, 141-145, 164-170, 214-215, 234-237, 240).

넷째, 이들이 발한 예언상의 오류가 수도룩하다 (pp. 107-108, 122, 192-201, 212).

다섯째, 이들은 종종 윤리적 비행을 저지른다 (pp. 89, 96, 100, 104-105, 113-117, 204-218, 239-240).

###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논평자는 이 글의 마지막 분단에서 한국 교회를 풍미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신사도 운동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것은 저자의 책에 대한 논평이 아니고 이 주제와 관련한 일종의 제언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기적적 은사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 논평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非常)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권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에는 축지법·장풍·각종 권법 등과 더불어 무림 고수들의 비술 등이 있고, 우리의 뇌리에는 귀신·선인·신선 등이 어우러지는 기묘한 광경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천지 융합적 세계관에 노출된 이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표준시하고 동경한다.

둘째, 이러한 동경 심리는 무교적 종교관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신기하고 비(非)일상적인 특수 현상을 “영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지옥을 다녀 왔다”든지 희한한 경험에 접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 게다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면에서 기적 투성이인데 영적 사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도 모른다.

셋째, 개인에 따라 질병·고난 등 극한적 상황에 처했다가 기도 응답이나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 구조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은 자신이 겪은 사건의 과정과 패턴을 신앙의 표준으로 상정하고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또 이런 이들의 간증을 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심리 상태를 형성한다.

넷째, 잘 고쳐지지 않는 성적 습관·중독 증상·마니아적 폐쇄에 빠져 있다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은사를 통해 해방을 맛보는 이들도 생긴다. 이런 이들이 가운데 과거 성령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한 전통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수록 더욱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은사에 집착하게 마련이다.

다섯째, 목회자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목회적 한계에 부딪혔다가 “성령”을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경우가 있다. 이후 이들의 목회 방침은 크게 선회하여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중에는 정말 그런 식의 성령 역사를 믿고 추구하는 이도 있고, 일부의 경우 목회자 자신은 꼭 그렇게 믿지 않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 실용적으로 그런 성령론적 전략을 채택하는 수도 있다.

이제 지경을 넓혀 전세계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

에서도 성령의 기적적·초자연적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의 침묵(silence of God) —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신약 성경 및 초대 교회 때와 달리 기적/비상 섭리를 베푸시지 않는 것, 또는 유대인의 집단 학살처럼 큰 단위의 비극이나 고난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 — 에 의문이나 회의를 느끼다가 기적적 개입을 갈망하는 쪽으로 신학적 급선회를 시도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안 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신론이나 불가지론 쪽으로 치닫기도 하는데, 차마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선교지의 어려움과 오랫동안의 영적 불모 상태를 타개해 나갈 수단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특히 복음에 대해 거부 경향이 심한 지역 — 힌두교, 모슬렘, 불교 등 저항 지역(resistant area) — 의 사역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지역의 현상을 신학적 표준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최근 10-15년 사이 북아프리카 지방 모슬렘 사이에서는 꿈·기적 등을 통해 집단 회심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태를 신학적 표준으로 삼는 이들은 자연히 초자연적 성령 역사가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그런 운동으로 전향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네 가지 항목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 계시 현상과 관련하여 회자되는 몇 가지 용어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흔한 예로서 “성령의 역사”, “계시”,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은사”, “하나님의 음성” 등이 있다. 이런 용어나 표현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설명·대화·논평에 임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된다.

둘째, 비판만을 능사로 삼지 말고 우리 편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유념할 바는 서구 기독교 정통 신학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독특한 환경과 상황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구의 그리스도인과 달리 무교적 기질이 깊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초자연적·기적적 현상을 선호하는 쪽으로 향하곤 한다. 따라서 꿈·환상·입신·접신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만의 신학적 성찰 가운데 풀어내는 지혜와 탄력성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적 대안 제시는 말로만 끝나기가 쉬울 것이다.

셋째, 둘째 항목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주의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성령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주, 성령을 앎,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조명,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성경적·신학적·한국적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검증·분석·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예언이든 치유든 꿈의 해석이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느 면에서 진실이며, 어떤 점에서 사단의 역사이고 어떤 점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밝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빈번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교수의 「두 대적」 —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사도 운동 — 은 언뜻 보기보다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

서평

## 우리 이웃의 신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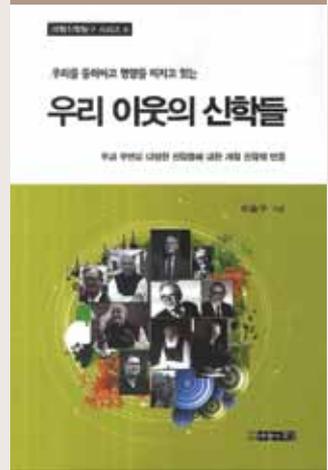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의 출판 동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책에서 다룬 신학자들과 운동들의 생각은 정통 기독교회의 가르침과 다르고, 특히 개혁파 정통주의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학을 하지 않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심각성을 느낀 저자는 성경적,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이 사상들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들 사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이들의 잘못된 영향에서 벗어나 참된 성경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비교적 명료하고 쉽게 신학적 이슈들을 풀어내고 있다. 특별히 최근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의 배경과 특성,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신학도와 목회자들의 필독서로 추천할만한 책이다.

저자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종교 다원적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종교 다원적 상황은 신약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다.



**안명준** 중앙대학교출연, 합동신학대학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University of Pretoria(Ph.D.)을 거쳐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피어선기념성경연구회 원장이다. 또한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 한국장로교신학회 총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기독교학술원원,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자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향들 곧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계시가 지금도 임한다는 신사도 운동이다. 또 혼동을 주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거나 성경과 정통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는 바르트, 차일즈, 피터 엔스, 존 요더, 레슬리 뉴비긴, 톰 라이트 등의 학자들도 다룬다. 이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침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검토하여 경계시키고 올바른 개혁파적 성경신학의 길을 찾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주교 신학, 종교다원주의와 내포주의 신학, 바르트 신학, 매력을 주는 신학, WCC 신학을 다루고 있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헨리 나우윈, 관상기도, 로마가톨릭 교회의 '의화(義化)'를 다룬다.

저자는 헨리 나우윈이 누구이며 진정 복음주의적 신비가이며 영성가인지 개혁신학적으로 성찰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천주교 사제인 나우윈의 신학은 한 마디로 준비주의를 강조하는 공로신학이며 반 펠라기우스주의로, 만인구원론적 경향을 띠고 있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위배된다. 또한 그는 성경적 윤리관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저자는 토마스 머튼과 토마스 키팅에 의해 주도되는 관상기도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는 관상기도의 문제점과 약점을 잘 극복하면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소수의 주장까지도 비판한다. 관상기도는 신과의 합일을 위해 요가나 초월명상을 이용하여 꾸준한 기도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반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반된다. 성경의 경건을 떠난 관상기도는 보편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를 제시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또 성경의 선택 구절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기도는 본문의 참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주해하여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성도들은 성령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세로 설교와 강의를 들어 가장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 근원적 사상을 파악하는데 힘을 쓸 것을 당부한다.

로마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왜곡된 교리를 작성하였다. 천주교의 의화 교리는 은혜의 주입이라는 반 펠라기우스적 신학으로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구원받는다 진리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변경하였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천주교에 이질적인 세계관이 들어왔음을 반영한다.

저자는 종교 다원화 속에서 존 희를 평가한다. 희은 예수님을 참된 신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가 아니며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도 하였고, 신 개념도 참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다. 심지어 구원 역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중심의 이기성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론을 양태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구원에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희의 구원론은 내포주의 신학자 클락 피녹과 유사하다. 클락 피녹은 구원의 개방성과 그리스도의 최종성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개방적이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시며 그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희망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녹의 내포주의는 복음화되지 못한 이들의 최종적 구원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선 것이다. 피녹은 하나님의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고, 결국 일반은총에 대해 알미니우스주의적 사유에서 더 나아가고 말았다. 저자는 피녹의 주장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나갔다고 비판하였다.



계시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초기 바르트(Karl Barth)의 이해를 저자는 흥미롭게도 키에르케고어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특별히 계시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바르트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키에르케고어는 계시는 시간과 역사 너머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시는 시간과 역사 너머 혹은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저자는 케에르케고어에게 하나님과 인간, 영원과 시간의 이원론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행위에서 극복된 이원론인 반면,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영원과 시간, 원역사와 역사, 근원의 영역과 이 세상 영역, 시간과 역사 너머에 있는 것과 시간관 역사 안에 있는 것 사이의 이원론은 하나님조차도 극복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조롱한다.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불인정과 비평적 방법을 창조적으로 충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참다운 개혁과 성경 신학의 원리를 잘 드러내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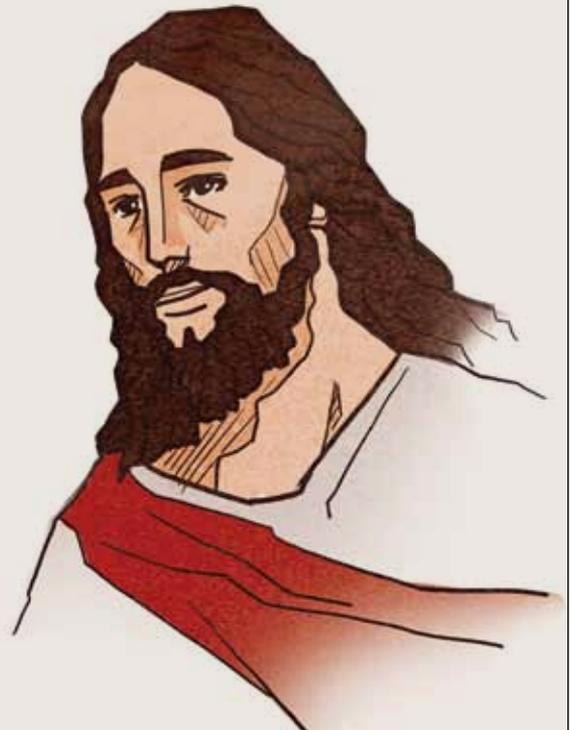
또한 저자는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피터 엔즈(Peter Ends)의 성경 해석은 기존의 사도적 개혁신학 전통에서 진보적으로 시도하려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자는 존 요더(John Yoder),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egin), 해방신학,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톰 라이트(N. T. Wright) 등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이지만 먼 이웃의 신학들이라 평가한다.

저자는 존 요더(John Yoder)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한 후 아쉬운 점과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구원 문제의 모호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지옥에 대한 잘못

된 인식 등이다. 그러나 요더의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성경 전체를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과 사회에 대한 책임 회피, 국가와 군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 등이다.

저자는 뉴비긴의(Leslie Newbegin) 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톰 라이트(N. T. Wright) 신학을 평가한다. 저자는 이들의 신학적 공헌과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적 관점과 동떨어져 있음을 주시시킨다. 이들은 모두 구원론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라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무엇인지 말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㉞



서평

#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느덧 30년이다. 새내기 교사로 돈암동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 맑은 눈동자를 가진 40명의 어린 야수들 사이에 던져지기라도 한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음... 애들이 나는...” 그 후로 40분 동안 나는 혼자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복도로 뛰어나가 주임선생님 반을 들여다 보려 했지만, 교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럼, 같이 발령받은 옆반 김선생은?” 마찬가지로 닫혀 있어서, 나는 외로이 5학년 국화반 담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하루가 참 길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실에서 누리는 영향력으로 인한 달콤한 권력과 재미에 익숙해져 갔다. 가끔씩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오가기

는 하지만, 교실로 들어오시지는 않았다. 몇 가지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교사 회의도 자주 있었지만 누구도 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성주(城主)였다. 선교회 활동 등 교회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나름 의식 있는 젊은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던 내 열심은, 나의 城, 5학년 국화반과는 별개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보고 싶었던 나는 5년 뒤 과감히 나의 성(城)을 포기했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고 수원에 기독교 학교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미션 스쿨인가?” 아니란다. 호기심 반, 어쩔 수 없는 이끌림 반으로 나는 그곳의 교사가 되었고, 이번에는 1학년 솔반이라는 성(城)을 하사받은 듯했다. 그때였다. 지금은 교인이 되신 이도선 상임이사님이 건내주신 책이 내게 물었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박영주**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교실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수업을 하는 것도 나고, 아이들을 예뻐하며 돌보는 것도 나고, 때로는 무섭게 훈육하며, 맘고생하는 것도 나인데요? 교실은 내 영역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저는 새내기 교사가 아니랍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도 좋은 기독교사이고 싶었던 나는 동료들과의 독서 토론을 계속했고, 어느덧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기독교적 정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미 세속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분투해온 반 부르멜른 교수의 고민과 열심, 그리고 비전이 막 걸음마를 시작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당시, 일반 학교 교육 현장에는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고, 좋은 연구서나 자료가 거의 없었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는 나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에게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사 이상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교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2014년에 새롭게 출시된 전면 개정판은 특별히 4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가하여 공교육 현

장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독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변화하는 다원주의 세속 교육 현장에서 정직하면서도 확고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공립학교 기독교사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이 진주같이 귀하지만,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한 교사였고, 이제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사들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대학원의 교수로서 나는 특별히 두 주제에 주목하고 싶다.



하나, 4장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반 브루멜른 교수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의미 있는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존 교육학자들의 네 가지 인간관 비유를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첫째 비유는 아이들을 지식을 기록하는 백지나, 사실이나 개념을 저장하는 돼지 저금통으로 보는 주입식 교육의 관점이다. 둘째는, 인간을 훈련 대상으로 보는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이다. 셋째는 아이들을 천천히 펼쳐지는 자라는 식물(Unfolding plant)로 비유하는 인지론자들의 관점이며, 마지막으로 듀이(Dewey)나 프레이리(Freire) 등은 학생을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며, 학습을 사회 개선의 수단으로 보았다. 브루멜른 교수는 위 비유들에도 우리 기독교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는 풍성한 성경적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

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독특하게 창조되었기에, 저마다 독특한 자유와 능력을 사용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기독교사들은 학생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여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인간관의 다양한 비유들이 내포하고 있는 장점을 받아들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하는 제자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알맞은 과제로 의미 있는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 브루멜른 교수는 교사가 필요한 모든 학습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오직 성령이 교사와 학생들을 붙들고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만 학생들이 응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 하나는 8장,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학교는 아이들을 문화화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상적인 기독교 학교는 자신의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개인들의 집단 이상으로, 공통의 이상과 목적으로 여인 학습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반 브루멜른 교수에 의하면 학교가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주로 학교 문화(학교의 신념, 가치관, 태도, 분위기, 전통, 기념 행사 등)에 달려있으며, 학교 문화는 학생과 교사의 태도 및 성취에 영향을 준다. 사실 완벽한 학교 공동체는 없다. 죄의 힘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인자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학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신앙적 통찰을 공유하고 학습의 의미를 성찰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의 훈련과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우호적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수업에 돕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 브루멜른 교수는 역설한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굳게 결합된 몸이며, 각 교사는 그 몸의 한 지체로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더 낮지 않다. 또한 학교가 기독교적 학습 공동체가 되려면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는 교육의 제1차 책임자이다(신 6:6-9, 엡 6:4). 학생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권위,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경험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이들이 속한 사회는 세속적이고 이익, 권력 지향적이어서,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이 자주 무시되거나 심지어 조롱당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인 부모와 교사가 공통의 성경적 가치관에 헌신되어 있고, 서로 돕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안정된 학습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또 개별 교실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라는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도전을 받은 지 어언 20여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1월 반 브루멜른 교수님과 식사하며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것이 그분 생전의 마지막 만남일 줄은 몰랐다. 헌신된 교육가이자 존경 받는 스승, 반 브루멜른 교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이 평생에 걸쳐 달려오신 기독교사의 바톤이 이제는 나와 한국의 많은 동료 기독교사들의 손에 쥐어졌다.

다짐해본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3-4) ㉮

서평

# 좋은 교사를 꿈꾸다:

한 교사의 기독교적 수업을 향한 평생 분투기

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교사', '참교육'을 꿈꾼다. 그러나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참된 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좋은' 또는 '참된'이라는 말에는 가치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세속적 가치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준거로 좋은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분투의 과정'이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한다. 저자가 기독교적 관점을 취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나아가고자 하는 완전한 모습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저자의 경험담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학문과 다양한 기독교적 교육모델에 대한 검토, 외

국 기독교 교육기관의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올바른 방향을 검증해 나간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탐구이다. 저자가 기독교적 수업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기독교적 수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2부는 더 나은 기독교적 수업을 향한 제안이다. '기독교적'이란 말의 개념 정의 및 기독교적 수업의 구체적 모습, 기독교적 수업을 위한 교사의 위치를 정립한다.

1부를 시작하며 저자는 교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를 이야기하며 기독교적 수업을 화두로 던진다. 저자는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범대에 진학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가난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성품을 길러주며 학생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기도과 찬양



김현정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교육, 평화교육, 교사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더 공부하고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을 통해 신앙을 가꾸어 가는 교사가 되고자 했음을 밝힌다. 기독교인 교사로서 학교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과 책무는 생활지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그동안 기독교적 수업에 대해 두 가지-하나는 지식, 다른 하나는 지식과 삶의 관계에 대한 것-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오해는 많은 기독교인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에 대한 오해. 교사의 역할과 책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성경과 연결시키려고 했다. 사실 과학교사인 저자에게 창조론, 진화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었다. 그에게 기독교적 수업은 지식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거나 기독교적 수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식과 성경을 연결시키려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기계적 조작 같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저자도 인정한다.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카이퍼는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인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지식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있는 가치나 관점에 따라 지식의 수용 정도와 활용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풀라니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내면에 파편화된 지식이 떠돌게 될 뿐 통합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은 인간 내면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무관할 수 없다. 교사의 세계관, 철학, 종교 등 암묵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지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똑같이 봉사에 대

해 배우고 선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은 불교교리에 따라 살게 된다면 전자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동행하는 것이나 후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된다. 성경적 용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독교인 교사의 관점 즉, 교과외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수업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빈자리가 생긴다.”(41)

둘째, 지식과 삶의 관계에 대한 오해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저자는 기독교적 수업에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방식

을 길러주는 것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실제 속에서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란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행일치를 전제로 ‘앎’을 교육의 핵심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완성된 인격을 지닌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적 수업은 올바른 앎을 통해 타락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실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인격을 성숙시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에 감사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삶이 포함된다.

1부에서의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시행착오와 탐색을 통해 2부에서는 더 나은 기독교적 수업을 제안한다. ‘기독교적’이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교사의 위상을 정립한다. ‘기독교적’이란 말에는 기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철학과 신학도 녹아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지식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을 분별하고 왜곡된 지식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지식에 대한 전통적 관점, 쿤, 카이퍼의 견해를 비교하며 ‘기독교적’이라는 의미를 찾아간다. 지식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관찰과 실험 등 객관성, 경험성, 합리성을 보증하는 객관적 지식을 지지한다. 이것은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나 가치나 신념 등의 비객관적 요소는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다. 쿤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이다. 이것은 모든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상대주의에 빠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혼돈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모두 기독교적 지식과 비기독교적 지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카이퍼의 견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학문의 기초에는 절대 진리로서 성경이 전제가 되나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같은 지식이나 경험이라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카이퍼는 기독교적 지식과 비기독교적 지식을 해석의 차이로 보고 성경을 근거로 전우주적 범주를 포괄한다.

‘기독교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그러하듯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 역시 이분화되지 않는다. 기독교적 수업이란 교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철학에 따라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더라도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실천을 향하고 있다. 알빈 밴스트라에 따르면, “기독교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월드뷰 2014년 3월:8).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중 유치원 과정에서 끝벌레를 주제로 한 단원을 가르치는 예를 보면, 한 아이가 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는 대개 벌의 침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벌과 꿀의 관계에 대한 동화책 내용을 연상하지만, 교사의 안내에 따라 공부한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끝벌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벌집 안의 공동체 생활이 지닌 복잡성과 창조 질서에 경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뿐 아니라 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가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사는 기독교적 수업의 핵심이다.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인격적 성숙과 더불어 기독교적 가치관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자는 온전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를 통해 기독교적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식 자체를 전달하거나 성경만 가르치려 하는 이분법적 사고나 지식을 성과 연결시키려는 기계적 작업, 교사의 역할과 임무를 지식 전달에만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적 수업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수업이란 교사의 올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학생이 타락한 삶을 교정하고 행복한 삶에 다가서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교사 또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본서는 기독교적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유용한 책이다. 기독교적 수업의 본질을 안내하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상황에서 교사로서 기독교 수업을 직접 탐색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다. 따라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미국이나 영국이 종교교육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교육에서 종교적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다.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언급조차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체성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또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모호한 이해로 자기만족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기독교인 교사들에게 이 책은 기독교적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고충에 공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둘째, 기독교적 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기독교적 수업과 비기독교적 수업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성경 용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교사의 신념과 종교 등 암묵적 요소를 통해 기독교적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 영역의 개념은 성스러운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이 타락함으로써 구분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식 또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대상으로 올바른 관점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적 수업의 범주를 확장시켜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배제와 분리가 아닌 본래 하나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온다.

셋째, 기독교적 수업을 위한 최종 대상을 교사로 두고 있다. 일반 수업에서도 교사의 역량과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는 특히 교사의 성숙된 기

독교적 관점이 기독교적 수업의 여부와 그 질을 결정한다. 교사는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형성하게 도울 뿐 아니라 교실 공동체에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독교적 삶을 실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올바른 교실 공동체의 형성,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학교 및 교육 공동체의 긍정적인 운영도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 교사의 자질과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언 4:23) 이처럼 교사의 마음을 통한 개혁은 근본적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후 더 이상의 의견 개진 없이, 회의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개개인의 교사가 올바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적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 운영 전반을 맡아 행하는 것도 교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교사는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온전한 기독교적 관점을 성숙시키고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전달하고 이것을 삶 속에 실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소명은 후대를 축복하는 선대의 기도가 될 것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680,000		기타급여	1,413,500
	일반회비	4,467,500		소계	4,813,500
	기관후원금	3,6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0		사무실관리비	282,000
	월보구독료	735,000		통신비	183,800
	CTC후원금	330,000		우편료	31,09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543,860
	기타	0		식비	543,860
				복리후생비	958,010
		교육비		200,0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427,635	
		소계	3,396,395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18,000	
			CTC후원금	368,350	
			소계	386,35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000,000	
			발송비	650,100	
			소계	2,650,100	
	소계	11,012,500			
기타수입	이사수입	757	기타	세금	33,920
	기타수입	339,630		기타	0
	소계	340,387		소계	33,92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학회자료집판매	10,000		학술지발송비	0
	학술지심사비	280,000		학술지심사료	0
	학술지게재료	3,357,500		학회기타	136,300
	소계	3,747,500		소계	136,300
당월 수입액	15,100,387	당월 지출액	11,416,565		
전월 이월액	28,030,950	차월 이월액	31,714,772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300,000
				소계	1,9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24,000	
		인쇄비		2,222,660	
			기타제작비	50,000	
	소계	1,550,000	소계	3,656,66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복리후생비	623,186
	국고환급	8,000		회계용역비	110,000
	기타수입	209,610		통신비	100,000
				소계	1,108,186
	소계	2,467,610	기타지출	세금	75,520
		기타		3,300	
		소계		78,82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155,000
	미디어기타	0		홈페이지제작비(2차)	1,000,000
	소계	0		소계	1,155,000
당월 수입액	4,017,610	당월 지출액	10,910,510		
전월 이월액	30,393,245	차월 이월액	30,393,245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30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셋별,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유성욱, 이명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한재승,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성,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지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승룡, 박찬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윤희,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중국, 정법재,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은희,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박사라 7천5백 고상섭, 김은민, 김형건, 김효태, 민수진, 박대희, 박현빈, 방성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효식,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광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희, 김고운, 김광병, 김광순,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봉례, 김상복, 김상욱,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수숙,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숙, 김영란, 김영호, 김요한, 김용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종규,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철수, 김판임, 김혁, 김현경, 김형길,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승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시은,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세원, 배지연, 백경은, 백은미, 백현준, 변희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소중화,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원, 신성자, 신진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호영, 심인욱,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건, 양예찬, 양행모,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심, 윤상현, 윤천석, 이갑두, 이강, 이경숙, 이계심, 이관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다은, 이덕영, 이란,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상섭,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용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은미,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화일, 이화진, 임동진, 임수연, 임영, 임일택, 임지연, 장경근,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 (양중태), 장인숙, 장대준, 장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중화,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상록, 정세준, 정은경, 정은우, 정은우,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희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향, 조주영, 조현우, 조혜경, 조혜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은영,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효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현, 현승건, 현한나, 홍선호, 홍세기,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찬진, 김선화, 김영환, 김효순, 유익신, 정상섭, 최동원 2만 David Han, 강대훈, 강석현, 강용란, 김세광, 김영석, 김용수, 김인숙, 김정호, 나동훈, 노경순, 노용환, 배성민, 배은경, 배인교, 백은석, 변우진, 양해원, 오한나, 우시정, 유경숙, 이건, 이명희, 이은혜, 이인아, 정현주, 조창근, 최성두 2만5천 문석운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대하, 황정진 4만 최현식 5만 김경숙,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양성만, 조무성 8만 권정아 10만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송인규,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방영숙 15만 손봉호 21만 정영록 50만 김승욱

계 7,412,500원

##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한가죽교회  
 10만 금성교회, 부천침묵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새인약교회, 성덕교회, 연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15만 마포중앙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3,600,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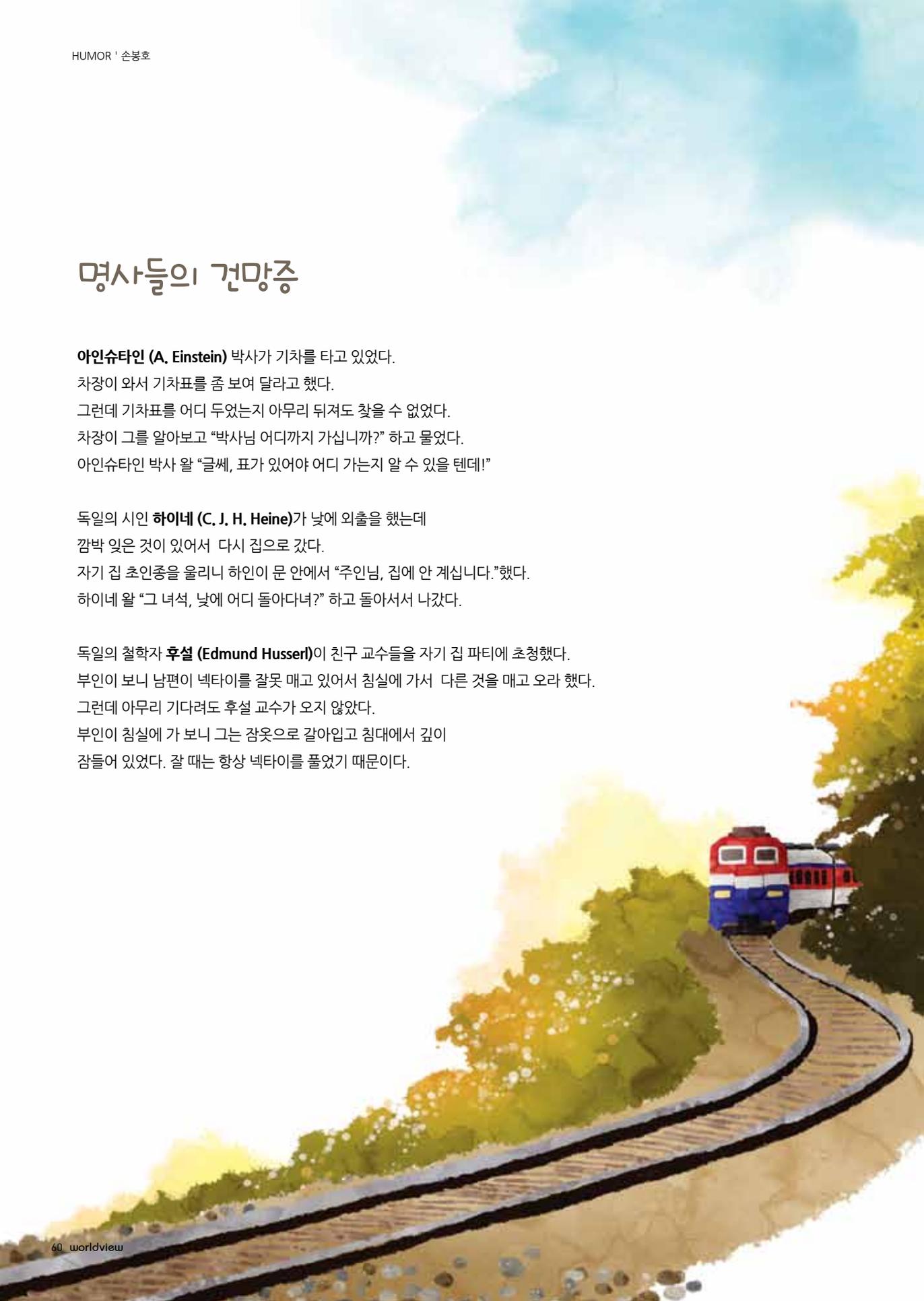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명사들의 건망증

**아인슈타인 (A. Einstein)** 박사가 기차를 타고 있었다.  
차장이 와서 기차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다.  
그런데 기차표를 어디 두었는지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차장이 그를 알아보고 “박사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인슈타인 박사 왈 “글쎄, 표가 있어야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독일의 시인 **하이네 (C. J. H. Heine)**가 낮에 외출을 했는데  
깜박 잊은 것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갔다.  
자기 집 초인종을 울리니 하인이 문 안에서 “주인님, 집에 안 계십니다.”했다.  
하이네 왈 “그 녀석, 낮에 어디 돌아다녀?” 하고 돌아서서 나갔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 (Edmund Husserl)**이 친구 교수들을 자기 집 파티에 초청했다.  
부인이 보니 남편이 넥타이를 잘못 매고 있어서 침실에 가서 다른 것을 매고 오라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후설 교수가 오지 않았다.  
부인이 침실에 가 보니 그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잘 때는 항상 넥타이를 풀었기 때문이다.



## [학회]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자의 삶 속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4.11.8(토)
- 장소 충신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소재)
- 문의 gihakyun@daum.net / 02-3272-4967 (학회)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임원회의] 2014년 제2차 실행위원회의

2015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사무국 이사 이후에 처음으로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실행위원회의 오픈 해당 임원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동역회 실행위원 및 학회 임원
- 일시 2014.11.7(금)
- 장소 용산 사무국 (이촌로2가길 5)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효영 간사)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독 대학원생

기독대학원생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 일시 2014.11.28(금)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숙대입구역 10번출구에서 골다리지나 오른쪽 맞은편)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4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2014년 마지막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 (학회)

## 2014년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2014년 총회를 실시합니다. 한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2015년을 설길 임원을 임명하여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및 임원
- 일시 2015.1.19.(월)
- 장소 새로운교회(서울시 서초구 교총회관)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효영 간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임원소식



### [임원동정] 강진구 교수(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고신대) 신간 소개

삶을 새롭게 하는 죽음생각 『죽음과 종교』, 강진구, 장경철, 두란노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죽음을 배울 것을 강조한 이 책은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생각해 봄으로 삶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영혼으로 섬기는 지성의 제자도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정기총회

대 상 **정회원** 및 임원  
일 시 2015. 1. 19(월)  
장 소 **새로운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한국교총) 에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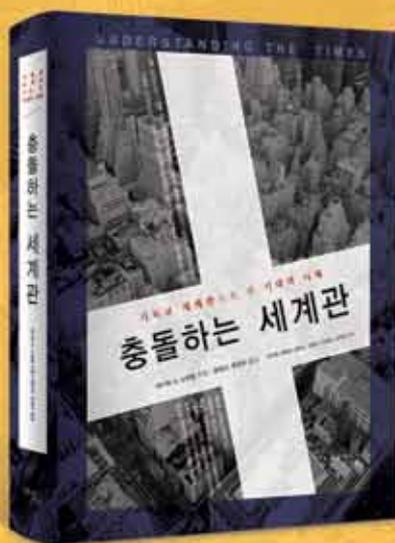
순서

- 1부. 신년감사예배
- 2부. 정기총회
- 3부. 만찬 및 교제

오시는 길

**3호선 양재역** 11번출구(성남방면)로 나와 마을버스 18번(우면동 교총방면),  
시내버스 3412번을 이용하여 교총회관에서 하차

**4호선 선바위역** 1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18번(우면동 교총방면)을 이용하여 교총회관에서 하차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면동 142번지)



데이빗 A. 노에벨 지음 | 유현찬, 유현오 옮김  
187x260mm | 608면 | 양장 | 정가 35,000원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충돌하는 세계관

이 책은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들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기독교인과 기독 청년들이 비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념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초래한 비성경적, 비현실적, 더 나아가 실재에 관한 비논리적인 가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주제** 신학 / 철학 / 윤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경제학 / 역사학

**대표적 세계관** 기독교 / 이슬람교 / 세속적 인본주의 / 뉴에이지 / 마르크스-레닌주의 / 포스트모던주의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김성수 박사(고신대 총장), 김의원 박사(백석대 부총장),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 성인경 목사(라브라공동체 대표간사), 김승욱 교수(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공동대표) 추천

“이 시대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기 위한 세계관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는지 아는가!”

《충돌하는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망원경과 현미경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이념이며 《충돌하는 세계관》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념들을 기술했습니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세계관들을 비교해 본다면 궁극적 선택은 오로지 하나 즉,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 데이빗 A. 노에벨,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한다!

# 국제 기독교교육자 컨퍼런스 ICEC



2014년 11월 26일 -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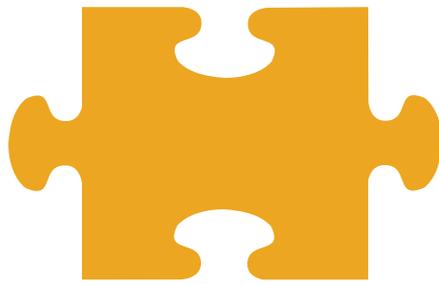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대전외국인학교

접수 및 등록안내: 042-620-9007

자세한 사항은 대전외국인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tcis.or.kr](http://www.tcis.or.kr)

“More Than We Imagine”



초대합니다!!

대전외국인학교에서 세계 유수의 강사들을 모시고,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워크샵 및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오셔서 새로운 국제교육의 트렌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Guests

Dr. John Dickson

Dr. Daniel Egeler

Dr. James Kim

Dr. Paul K.S.Kim

Dr. Brandon O'brien